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246호 【루계 제26120호】 주체107(2018)년 9월 3일 (월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총공격전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 승리자의 긍지드높이 9월의 대축전장에 떳떳이 들어서자

백두의 기상 떨치며 질풍같이 내달린다

삼지연군꾸리기전투장에서 살림집과 공공건물골조공사 결속단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지말씀을 결사관철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삼지연군꾸리기전투장에서 혁신적인 성과가 날이 갈수록 확대되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216사단 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 돌격대원들은 당정책결사관철의 정신과 자력갱생의 투쟁기풍으로 련속적인 공격을 돌이대여 삼지연군 읍지구 180여개 호동의 살림집과 백수십개의 공공건물골조공사를 기본적으로 결속하였다.

그리하여 백두의 천고밀림을 배경으로 산간도시의 웅장한 자태가 드러나게 되였다.

살림집과 공공건물골조공사에 이어 지붕공사와 내외부미장공사, 주변지대정리도 빠른 속도로 다그쳐 최단기간에 전반적인 공사를 끝낼수 있는 돌파구가 열리게 되였다.

뜻깊은 9월의 명절을 맞으며 백두전역에서 전해진 새 소식은 온 나라 천만군민에게 기쁨을 안겨주고있다.

온 나라가 경제건설대진군에 보다 큰 박차를 가하기 위한 증산돌격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는 속에 창조된 이 자랑찬 성과는 당에 끝없이 충실한 216사단 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 돌격대원들의 불타는 충정과 결사관철의 투쟁정신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삼지연군을 잘 꾸려 장군님의 혁명생애와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가야 하며 우리 혁명의 성지인 백두산아래 첫 동네에서부터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 만세소리가 울려퍼지게 하여야 합니다.》

216사단 현장지휘부 지휘성원들은 높은 공사성과를 마련하고 백두산아래 첫 동네에서 9월의 대축전을 빛나게 맞이할 불같은 일념안고 공사조직과 지휘를 박력있게 해나갔다. 지휘부에서는 모든 려단, 련대들에서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렬차전, 전격전을 힘있게 벌려 위훈을 창조하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였다. 이와 함께 북부지대의 자연지리적특성에 맞는 공법들을 적극 받아들여 공사속도와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도록 하였다.

성, 중앙기관려단에서 높은 속도를 창조하며 혁신의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였다.

려단에서는 골조공사를 앞당겨 끝낸 인민보안성련대와 3련대, 5련대의 경험을 일반화하면서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였다. 그리하여 8월 공정계획을 140%이상 넘쳐 수행하고 련속공격전으로 내부미장과 외부미장, 지붕씌우기를 비롯한 마감공사를 본격적으로 내밀고있다.

922건설려단 평양시련대와 백두산영웅청년려단 평양시련대에서 새로운 평양정신, 평양속도창조자들의 투쟁본때를 힘있게 과시하며 공사속도를 높여나갔다.

련대일군들은 평양시당위원회의 지도방조밑에 제기되는 건설자재와 장비들을 보장하는데 힘을 넣으면서 공사조직과 지휘를 치밀하게 짜고들어 수십동의 살림집과 공공건물골조를 완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창조와 혁신의 불길은 922건설려단 라선시련대와 백두산영웅청년려단 라선시대대에서도 세차게 타올랐다.

이들은 북부지대의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건설공법들을 받아들이고 자재보장사업과 공정별 로력배치를 합리적으로 짜고들어 덩지가 큰 삼지연음려관을 비롯한 여러 대상들의 골조공사를 앞당겨 끝내였다.

618건설려단 황해북도련대와 강원도련대를 비롯한 많은 련대, 대대들에서도 앞선 단위들의 경험을 본받아 자력갱생, 견인불발의 정신으로 공사를 본때있게 내밀어 많은 건설대상들에 대한 골조공사를 끝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지말씀관철에 떨쳐나선 돌격대원들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216사단 현장지휘부 정치부에서는 돌격대원들의 심장마다에 혁명열, 투쟁열, 애국열을 북돋아주고 증산돌격운동에로 고무추동하는 화선식선동을 박력있게 벌리고있다.

특히 려단, 련대공사실적을 한눈에 알아볼수 있게 경쟁도표를 게시하고 주, 월별로 총화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함으로써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 온 건설장에 전투적기상이 차넘치게 하고있다.

만리마속도창조의 기상이 나래치는 백두전역으로는 온 나라 인민들의 뜨거운 지원의 마음이 세차게 굽이쳐오고있다.

성, 중앙기관들과 각 도, 시, 군들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삼지연군을 우리의 사회주의문명이 응집된 산간문화도시로 훌륭히 일떠세울데 대한 당의 구상과 의도를 심장으로 받들고 지원사업을 성의껏 진행하여 공사장에 비약의 숨결을 더해주고있다.

지금 216사단 전체 지휘성원들과 군인건설자들, 돌격대원들은 골조공사를 기본적으로 끝낸 기세로 련속공격, 계속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며 내외부미장과 지붕씌우기를 비롯한 마감공사를 본격적으로 다그치고있다.

홍 성 준

년간 인민경제계획 빛나게 완수

룡해운성 자동차운수관리국에서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자랑찬 로력적선물을 안고 9월의 대축전장에 떳떳이 들어설 일념으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을 힘있게 벌리고있는 시기에 룡해운성 자동차운수관리국에서 혁신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룡해운성 자동차운수관리국에서는 중요단위들에 대한 화물수송과 려객수송에서 혁신을 일으켜 지난 8월 30일까지 년간 인민경제계획을 지표별로 빛나게 완수하였다.

이것은 오늘의 경제건설대진군에서 전형단위의 영예를 계속 빛내여갈 굳은 각오를 안고 기적창조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온 이곳 일군들과 수송전사들의 불굴의 정신력이 안아온 자랑찬 성과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5개년전략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전민총돌격전을 힘차게 벌려야 합니다.》

관리국당조직에서는 년초부터 국안의 일군들과 수송전사들이 공화국창건 일흔돐을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가도록 화선식정치사업을 심화시켜나갔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관리국창 모부에서는 년간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완수할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전투작전과 지휘를 치밀하게 짜고들었다.

국장 홍승철동무를 비롯한 관리국의 일군들은 직접 산하단위들에 내려가 걸린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었다. 그들은 현지에서 자동차를 타고 수송임무도 함께 수행하면서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서 돌파구를 열어나가며 대중의 앙양된 기세를 북돋아주었다.

중요대상건설장들에 대한 물동수송임무를 맡고있는 관리국아래 기동려단의 일군들과 수송전사들은 싸우는 고지에 탄약을 보장하는 심정으로 필요한 자재와 설비들을 제때에 운반하였다. 이곳 일군들과 수송전사들은 혁명열, 투쟁열로 가슴을 끓이며 수송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킴으로써 년간계획을 앞당겨 수행하였다.

청진뻐스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새형의 뻐스를 생산하여 당 제7차대회에 자랑찬 로력적선물로 드리고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리였던 그날의 영광을 가슴에 안고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을 적극 벌려나갔다. 그들은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가며 서로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 지난 6월 30일까지 년간계획을 끝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평양영예군인자동차부속품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도 집단적혁신의 불길높이 지난 7월 30일까지 년간계획을 완수하였다. 이들이 자체로 생산한 연유절약기들이 400여대의 자동차들에 설치되여 많은 연유를 절약하고있다.

평양먼거리려객차사업소를 비롯한 산하단위들에서도 총정의 운행길을 달리고달려 관리국적인 인민경제계획수행에 적극 기여하였다.

지금 룡해운성 자동차운수관리국의 일군들과 수송전사들은 뜻깊은 올해를 빛나게 장식할 열의에 넘쳐 이룩한 성과에 자만함이 없이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가고있다.

본사기자 신 철

발전설비대보수성과 계속 확대

각지 화력발전소들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각지 화력발전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발전설비들을 정비보강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이들은 정초부터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고 가지있는 기술혁신안들을 널리 받아들이면서 설비정비보수에 큰 힘을 넣어 8월까지 10여대의 보이라와 타빈발전기대보수를 질적으로 해제끼는 로력적위훈을 창조하였다.

각지 화력발전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현행전력생산을 다그치는것과 함께 년간 발전설비대보수과제를 기어이 완수할 열의안고 대보수전투에 계속 드센 박차를 가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화력에 의한 전력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며 불비한 발전설비들을 정비보강하여 전력손실을 줄이고 최대한 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전력공업성에서는 3, 4분기계획을 무조건 완수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리면서 발전설비들의 대보수 및 중보수에 계속 큰 힘을 넣고있다.

화력발전부문을 담당한 일군들이 각지 화력발전소들에 달려나가 보이라와 타빈발전기들을 높은 질적수준에서 정비보수하고 발전설비들의 기술개조를 다그치기 위한 사업을 완강하게 밀고나가고있다.

굴지의 동력기지들인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와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에서 대보수전투가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의 일군들은 설비리용과 로력조직을 합리적으로 하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리면서 발전설비대보수에 화력을 집중하고있다.

열설비보수직장과 타빈보수직장, 미루보수직장의 로동계급은 자력갱생, 견인불발하여 방대한 량에 달하는 6호기와 8호기의 보이라 및 타빈발전기대보수를 빛나게 완수하는 자랑을 떨치였다. 이들은 충천한 기세로 가까운 시일안에 7호기대보수를 다그쳐 끝낼 목표를 내세우고 계속전진, 계속혁신해나가는 동시에 대보수 및 중보수에 계속 큰 힘을 넣고있다.

화력발전부문을 담당한 일군들이 각지 화력발전소들에 달려나가 보이라와 타빈발전기들을 높은 질적수준에서 정비보수하고 발전설비들의 기술개조를 다그치기 위한 사업을 완강하게 밀고나가고있다.

굴지의 동력기지들인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와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에서 대보수전투가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의 일군들은 설비리용과 로력조직을 합리적으로 하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리면서 발전설비대보수에 화력을 집중하고있다.

열설비보수직장과 타빈보수직장, 미루보수직장의 로동계급은 자력갱생, 견인불발하여 방대한 량에 달하는 6호기와 8호기의 보이라 및 타빈발전기대보수를 빛나게 완수하는 자랑을 떨치였다. 이들은 충천한 기세로 가까운 시일안에 7호기대보수를 다그쳐 끝낼 목표를 내세우고 계속전진, 계속혁신해나가는 동시에 대보수 및 중보수에 계속 큰 힘을 넣고있다.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의 전력생산자들은 집단적혁신의 불길높이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을 활발히 벌리면서 어려대의 보이라대보수를 질적으로 끝내였다. 절사관철의 투쟁기풍을 체질화한 이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한대의 타빈발전기대보수도 마감단계에서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높이 세운 8월 전력생산계획을 기한전에 빛나게 완수한 청천강화력발전소와 동평양화력발전소, 순천화력발전소의 로동계급은 현행생산과 발전설비들의 정비보수를 동시에 내밀면서 혁신의 앞장에서 계속 질풍같이 내달리고있다.

발전설비들의 정비보강에 큰 힘을 넣고있는 청천강화력발전소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은 급수뽐프들의 정상가동을 보장하고 새로운 증기압력자동조절체계를 받아들이면서 대보수성과가 그대로 전력증산으로 이어지도록 하고있다.

동평양화력발전소와 순천화력발전소의 전력생산자들은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뚫고 여러대의 보이라 및 타빈발전기대보수를 질적으로 끝낸 기세로 발전설비들의 가동대수를 더욱 늘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각지 화력발전소들에서 발전설비들을 정비보강하기 위한 사업이 줄기차게 벌어지는 속에 50여개의 공기예열기들도 새로 교체함으로써 발전효률을 더욱 높일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았다.

9월의 대축전장을 자랑찬 로력적성과로 빛내일 열의안고 증산돌격운동을 힘있게 벌리고있는 화력발전부문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전력생산과 발전설비대보수성과는 나날이 더욱 확대되고있다.

본사기자 정 순 성

자력갱생기치높이 증산돌격운동에 총매진

남포시안의 공장, 기업소, 건설장들에서

공화국창건 70돐이 하루하루 다가오고있는 지금 남포시안의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애국적헌신성을 최대로 폭발시키며 증산돌격운동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고있다.

시안의 중요공장, 기업소들에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생산공정들이 일떠서고 경공업공장들의 현대화가 적극 추진되여 증산의 동음을 울리고있다. 또한 여러 대상건설장들에서도 련일 혁신이 창조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세번째 해인 올해에 경제전선전반에서 활성화의 돌파구를 열어제껴야 하겠습니다.》

시당위원회에서는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에 화답하여 자력갱생과 과학기술의 위력을 충폭발시키며 철야진군을 다그치고있다.

공장, 기업소들과 건설단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전투적호소에 화답하여 자력갱생과 과학기술의 위력을 충폭발시키며 철야진군을 다그치고있다.

시당위원회 선전선동부의 일군들은 집중과 분산을 능동적으로 배합하면서 증산돌격운동이 벌어지는 시안의 중요공장, 기업소들과 기본대상건설장들에 선전선동력량을 기동적으로 파견하고있으며 각 구역, 군당조직들에서도 경제선동활동을 활기있게 전개해나가도록 하고있다.

시안의 선전선동력량이 총발동되여 집중포화, 련속포화, 명중포화를 들이대고 일군들이 이신작칙의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휘하며 증산돌격운동의 앞장에서 기세좋게 내달리는 속에 인민경제 선행부문과 경공업부문, 건설부문에서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에 금속공업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는데서 큰 의의를 가지는 생산공정들이 련이어 일떠서 철강재증산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최근 인발강관직장의 가열로에 고온공기연소기술을 화대도입한 련합기업소에서는 과철장입공정에 경과철프레스를 도입설치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굴지의 철의 기지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에서 대형기계제작설비들을 CNC화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 눈에 띄는 성과들을 거두고있으며 발전설비생산과 대상설비생산에서도 련일 집단적혁신을 일으키고있다.

금성뜨락또르공장의 일군들과 로동계급도 뜨락또르생산에서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공장에서는 높이 세운 뜨락또르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하기 위한 생산돌격전이 과감히 벌어지고있다.

대안전선유리공장, 대안전기공장, 대동강전기공장에서 자립적인 생산공정을 무리고 첨단과학기술성과를 도입하여 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또한 남포항만건설사업소에서도 집단적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으며 남포유리그릇분공장에서는 년간 유리병생산목표량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혁신의 불길은 경공업공장들에서도 타오르고있다.

시의 책임일군들은 종합식료공장과 학생가방공장, 기초식품공장의 면모를 일신시키며 생산을 정상궤도에 올려세우기 위한 사업을 틀어쥐고 강하게 내밀어 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다.

최근 짧은 기간에 수천㎡의 건축면적에 외장재를 바르고 연혁소개실과 제품진렬실을 새로 꾸린것을 비롯하여 전반적면모를 일신시킨 종합식료공장에서는 강냉이가공설비들의 가동을 시작하여 여러가지 강냉이가공식품수요를 보장할수 있는 밝은 전망을 열어놓고있으며 공우유생산과 당과류생산공정에서도 정상화의 동음을 높이 울리고있다.

제품진렬실과 기술준비실, 도안실이 현대적미감에 맞게 꾸려진 학생가방공장과 위생문화적환경을 갖춘 기초식품공장에서도 생산을 늘이기 위한 줄기찬 투쟁이 벌어지고있다.

증산돌격운동의 불바람은 건설부문에서도 세차게 일고있다.

일군들이 현장을 타고앉아 화선식정치사업과 참신하고 혁신적인 일본새로 전투를 능숙하게 지휘하고 건설자들의 애국적헌신성이 남김없이 발휘되는 속에 그믐우리양어장건설이 훌륭히 완공되고 양로원과 김치공장, 시양보장건물골조공사가 기본적으로 결속되였으며 잇달아 어려 건축물들이 경쟁적으로 솟구쳐오르고있다.

의료기구공장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개건하기 위한 사업이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서 옛모습을 찾아볼수 없게 변모되고있다. 2중, 3중전력공급체계가 완비된 시도시설계연구소에서는 건물의 내부를 일신하기 위한 개건공사가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또한 강서구역경기장이 웅장한 자태를 드러내며 솟구쳐오르고 강서약수공장에서 새로 꾸린 약수목욕탕운영을 위한 준비사업이 마감단계에 이르렀다. 시안의 거리와 마을의 면모를 일신하며 전반적인 국토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뜻깊은 올해를 자랑찬 로력적성과로 빛내이려는 시안의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의 숭고한 애국심과 혁명적열의가 최대한 발양되는 속에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이 힘있게 벌어지는 전구들마다에서는 날에날마다 위훈이 창조되고있다.

특파기자 주 창 선

재령-금산철길이설공사 기본적으로 결속

공화국창건 일흔돐을 자랑찬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투쟁으로 온 나라가 무궁무궁 끓고있는 속에 재령-금산철길이설공사가 기본적으로 결속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부름이라면 한마음한뜻으로 떨쳐일어나 산도 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기적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것은 우리 인민의 투쟁전통이며 기질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생전에 재령광산의 광석생산실태를 료해하시고 재령-금산철길을 이설하고 광석매장량이 풍부한 그곳에 새 광구를 형성할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여러차례에 걸쳐 재령-금산철길이설공사를 료해하시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주시는 은정깊은 조치들을 취해주시였다.

황해남도당위원회와 철도성정치국에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숭고한 뜻을 하루빨리 빛나는 현실로 꽃피우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치밀하게 짜고들었다.

내밀성이 있는 일군들로 지휘부를 조직하고 전실력량과 수단, 자재보장사업을 적극 앞세워 공사를 빠른 시일안에 질적으로 다그쳐 끝낼수 있는 담보를 마련하였다.

지휘부의 일군들은 철길이설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그 수행을 위한 투쟁에로 대중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힘있게 벌리였다.

화선선전, 화선선동의 북소리가 힘차게 울려퍼지는 속에 전투장마다에서는 위훈창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다.

로반공사를 맡은 황해남도철도건설려단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이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수십m의 암거공사와 10여만㎥의 토방처리 등 방대한 작업을 빠른 기간에 끝내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나갔다. 이곳 일군들은 건설자들의 책임성을 높여 속도와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는데 모를 박고 공사조직과 지휘를 혁명적으로 진행해나갔다.

나라의 강철기둥을 억척같이 다지는데 적극 이바지할 불타는 애국의 마음을 안고 산악같이 떨쳐나선 려단의 건설자들은 막아서는 애로와 난관을 드세찬 공격전으로 맞받아 뚫고나가며 석탄이라는 짧은 기간에 로반공사를 끝냄으로써 철길이설을 다그칠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놓았다.

평양철도국의 일군들과 로동자들도 낮과 밤이 따로 없는 긴장한 전투를 벌려나갔다. 철도국의 일군들은 시공의 질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요구성을 높이면서 해당 단위들과의 련계밑에 공사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풀기 위한 대책을 세워나갔다.

신천철길대 청년철길기계화기동1중대와 2중대, 해주철길대 청년철길기계화 기동1중대와 2중대를 비롯한 해주철도분국의 역, 대, 소에서 달려온 전투원들은 산악같이 떨쳐나 침목, 레루놓기와 철길고착품조립 등을 불이 번쩍 나게 다그쳐 완공의 날을 앞당기였다.

평양철도차량부속품공장을 비롯한 평양철도국아래 여러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철길이설에 필요한 새형의 무볼트고착장치를 제때에 생산보장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 공사추진에 적극 이바지하였다.

재령광산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현행생산전투를 벌리는 속에서도 철길이설공사에서 제기되는 자재보장과 함께 로력지원을 성의껏 하여 공사장의 숨결을 더욱 높여주었다.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철길이설이 기본적으로 결속된데 맞게 공사에서 미흡한 점이 없는가를 따져보며 마감작업을 적극 다그치고있다.

본사기자 정 경 철

9월의 대축전장에 떳떳이 들어설 일념안고 화차수리전투를 힘있게 벌리고있다.
—평양차량수리공장에서—
본사기자 리 동 규 찍음

위대한 조국을 천만년 노래하리라

《인민공화국선포의 노래》로부터 《조국찬가》까지 조국에 대한 명곡들을 더듬으며

건국의 환희로운 첫 기슭을 떠나 장장 일흔해를 지나온 우리 인민에게는 이 세상 어디서도 찾아볼수 없는 명곡의 바다가 있다. 그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답고 열정적인 선률, 가장 긍지높고 힘있는 서정의 웨침은 이 땅에 태를 묻고 삶을 꽃피운 모든 세대가 세기를 이어가며 어머니조국을 노래한 명곡들에 있다.

《인민공화국선포의 노래》로부터 《조국찬가》까지!

새 조선의 하늘에 람홍색공화국기를 높이 휘우던 첫 세대 공민들로부터 오늘의 세대에 이르기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이라는 그 신성한 영예를 안고 우리 인민이 불러온 조국의 노래들을 이어놓으면 그것은 곧 공화국이 걸어온 영광스러운 로정이 된다. 동시에 그 노래들은 주체의 사회주의조선이 무엇으로 하여 그리도 아름답고 강대하며 어떻게 력사의 온갖 험산준령들을 헤쳐넘으며 오늘까지 승리해왔는가에 대한 힘있는 대답으로 될것이다.

불멸하는 인민의 넋이고 영원히 높뛰는 심장인 그 노래들을 안고 위대한 조국이여, 그대의 아들딸들은 9월의 맑고 푸른 하늘아래서 이 땅을 목청껏 사랑하리라. 환희의 명절, 빛나는 승리를 경축하리라.

1

조국에 대한 노래는 인민의 노래이다. 비록 창작가는 한사람일수 있어도 국가와 사회를 이루는 절대다수 성원들의 공통된 사상감정이 응축되고 전체 인민이 정서적으로 공감하고 접수할 때만이 비로소 조국을 노래한것이라고 말할수 있다. 그런것으로 하여 조국에 대한 노래는 하나하나가 당대 시대상이 가장 포괄적으로 진실하게 반영된 거울이 되여 인민의 운명과 생활에 대하여, 조국이 걸어온 력사의 자욱자욱에 대하여 후손들의 마음에 선명하게 비쳐주게 된다.

조국에 대한 노래이자 인민의 모습이고 공화국이 걸어온 력사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발기와 직접적인 지도밑에 《애국가》와 《빛나는 조국》이 창작된 후 공화국창건과 더불어 나온 명곡이 《인민공화국선포의 노래》이다. 한가지 언급할것은 이 명곡 역시 공화국이 창건된 주체37 (1948) 년 9월이전에 창작되였으며 나오자마자 우리 인민들속에서 광범히 불리워졌다는것이다.

국가가 창건되기 전에 벌써 인민이 국가탄생을 경축하는 노래를 불렀다는것은 그 의미가 매우 심장하다. 그것은 공화국의 창건을 전체 인민이 지지하고 일심으로 받들었다는 위력한 산증거이다.

주체37 (1948) 년 8월 8일부터 금, 성과 이름까지도 다 빼앗겨 상가집개만도 못한 생을 살던 인민들이 인간존엄의 단상에 우뚝 올라섰다. 이것은 《인민공화국선포의 노래》의 사상감정을 폭발시킨 정서적축적이자 력사적인 첫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서 전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있어본적 없는 대승리를 낳은 전제로 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게 될 첫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 등록된 전체 선거자의 99.97%가 참가하였으며 선거참가자의 98.49%가 대의원후보자들에게 찬성투표하였던것이다. 단순한 공감과 지지가 아니라 인민이 온몸과 온넋으로 떠받들어올린 나라, 인민의 천추의 념원이 풀린 땅에 열광의 합창이 메아리쳤다.

…

산천도 노래하라 이날의 감격을
조선은 빛나는 인민의 나라다
아 자유조선 인민공화국
해와 별 빛나라 조국의 앞길에
…

우리 공화국은 이렇게 인민의 다함없는 축복의 노래속에 창건된 인민의 나라이다. 그 뜻깊은 해에 명곡 《새봄의 노래》, 《산으로 바다로 가자》도 나왔다.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절규가 라는 피마냥 끓어번지던 인민의 심장에서 꽃송이 루려루려 새 나라 노래하세라는 시어가 샘솟듯 흘러나왔고 가는 곳마다 아 아 아 이른 우리 하늘일세라는 노래의 선률이 출렁이는 바다처럼 가슴들에 차넘쳤다.

하지만 새 조선의 앞길에는 광만과 희열만이 노래되여 울린것이 아니다. 나라가 창건된 그해에 명곡 《구국투쟁가》가 예고한 전쟁의 난과도는 그로부터 2년도 못되여 우리 인민의 목숨같은 보금자리를 무참히 파괴하며 사정없이 밀려들었다.

전쟁, 그것은 인류에게 있어서 진정 불행이 아닐수 없다. 세상에 국가가 생겨난이래 수없이 살륙의 참화를 겪어온 인류문화의 창조자들은 전쟁이라고 할 때 아프리운 죽음과 비명, 솟구치는 불기둥과 파괴되는 창조물들, 피와 눈물을 먼저 형상의 화폭에 그려볼것이다. 하지만 참다운 삶의 꿈을 지켜 불사신마냥 일떠선 우리 인민에게는 3년간의 전쟁이 그 어느때보다도 조국에 대한 불타는 사랑으로 충만된 명곡이 많이 태여난 시기로도 뚜렷이 기억되여있다.

보병총이 어떻게 원자탄을 타승했는가고 만약 그 누가 묻는다면 우리는 당당히 말해줄수 있다. 우리 인민에게는 원자탄대신에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친 군민의 단결, 자기의것에 대한 무한한 애착과 믿음에서 용암처럼 분출된 조국의 노래가 있었다고.

《조국보위의 노래》, 《결전의 길로》, 《진군 또 진군》, 《해안포병의 노래》와 같이 하늘끝에 달았던 사랑과 긍지가 천둥번개와도 같은 증오로 뒤바뀌여 울린 노래들만 있는것이 아니였다. 전화의 불길속에서 태여난 《불노래》, 《압록강 2천리》, 《내 고향의 정든 집》, 《전호속의 나의 노래》, 《아름다운 고향》과 같은 작품들을 들어보면 조국에 대한 우리 인민의 사랑은 원쑤에 대한 증오속에서 막을수 없는 불길처럼 더욱 거세차게 승화되였다는것을 알수 있다.

재능있는 창작가들만이 아니라 평범한 군인들과 인민들이 예술창조활동에 적극 참가한것은 전시에 울려퍼진 조국의 노래를 두고 말할에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다. 《해안포병의 노래》, 《샘물터에서》, 《우리 님 영웅되셨네》와 같은 명곡들은 총을 들고 싸우던 인민군군관들과 전사들에 의하여 창작되여 오늘까지 그처럼 인민의 아낌없는 사랑을 받고있다.

리수복영웅의 시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18살 꽃나이에 후세에 길이 남을 명곡의 작사자로 된 그의 시구절은 조국해방전쟁에 참전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사상정신세계를 얼마나 훌륭히 반영하고있는가.

생명도 하나이고 조국도 하나이지만 조국을 위해 자기의 한목숨을 바치는것보다 더 위대한 행복이 없다는것을 기본사상으로 한 그 시의 구절구절은 결코 창작적환상으로는 지어낼수 없는것이다.

불타는 고지에서 화선악기를 만들고 총포탄이 작렬하는 싸움마당에서 노래를 불러 원쑤들을 기절초풍케 한 용사들, 파괴와 살륙의 폭음을 짓누르며 공장과 마을에서, 전야에서 조국을 노래한 인민들…

정녕 한 사람들을 영웅으로, 시인으로, 조국을 노래하는 가수들로 되게 한 그 전쟁을 두고 진정 무엇이라고 해야 하겠는가.

물리적으로 보면 그것은 불과 불의 대결장이였다. 또한 그것은 침략과 반침략과의 판가리결사전, 사회주의리념과 제국주의독재와의 피할수 없는 운명적대결이였다. 동시에 그것은 사랑하는 모든것을 지켜 분연히 일떠선 인민의 싸움, 인민이 조국을 노래하면서 승리한 전쟁이였다고 말할수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가지 중요한 문제점을 포착하게 된다. 어떤 철학자는 무엇인가를 사랑하고있을 때 모든 사람은 시인이라고 했다지만 청소했던 우리 공화국은 인민이 노래하는 조국이였기에 그처럼 강했고 기적적승리를 이룩할수 있은것이 아니겠는가.

노래, 그보다 더 열렬한 사랑의 감정, 그보다 더 굳건한 맹세와 의지, 그처럼 앙양된 정신력이 또 어디 있겠는가. 참다운 삶과 행복을 꽃피워주는 조국이 있고 가장 아름다운 조국의 노래가 심장속에 간직되여있을 때 그 인민의 단결은 강철의 산악이며 그 인민의 정신력과 투쟁력은 천만대적도 압승한다.

인민이 노래하는 조국은 반드시 승리한다는것, 이것은 비단 준엄한 전쟁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공화국의 전 력사적행로에서 검증된 진리이다.

3년간의 전쟁에서 승리한 조국은 또다시 빈터였다. 원쑤들이 100년이 걸려도 다시 일떠서지 못한다고 떠벌인 그 재더미우에는 벽돌 한장 성한것이 없었다. 나라가 어려운 시련을 겪고있던 그때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은 수령의 령도에 정면으로 도전해나섰고 남북땅에서는 《북진》나발이 매일같이 어지럽게 울려왔다. 대국주의자들의 압력 또한 간단치 않았다.

어찌 보면 전쟁보다 더 힘겨웠던 그때 가지고있는것은 맨손뿐이였지만 영웅인민의 심장은 수령의 부르심에 우렁찬 건설의 노래로 화답해나섰다. 리전을 다진다 힘차게 다져라라는 기백있는 첫 구절과 함께 유명한 《복구건설의 노래》, 해 둥다라 둥다라 둥다라 절싸 북통을 때려라 때려라는 흥겨운 가사와 선률장단으로 건설의 약동하는 기상을 멋들어지게 구가한 《일터의 휴식》, 《우리는 천리마타고 달린다》, 《천리마선구자의 노래》, 《천리마대진군의 노래》…

내외원쑤들의 악랄한 도전과 어려운 난국을 천리마의 노래로 짓부셔버리면서 조국은 그야말로 기적적인 속도로 전면적발전의 길에 들어섰다.

전후 3개년계획기간에 공업총생산액은 매해 평균 42%씩 장성하였으며 제1차 5개년계획을 공업총생산액적으로 무려 2년반이나 앞당겨 완수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리도 자주 더없는 자부심을 안고 교시하신것처럼 이렇게 빠른 속도로 경제가 발전한 실례는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수 없었다.

세기적인 락후와 빈궁, 류례없는 전쟁피해를 가시고 튼튼하게 다진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우에서 강력한 사회주의공업농업국가로 전변된 조국은 반만년민족사에 없었던 락원의 세시대를 펼쳤다.

착취와 압박이 없고 먹고 입고 쓰고 사는 걱정을 모르는 나라, 무료교육제, 무상치료제의 큰 대문이 전체 인민을 향해 활짝 열리였고 세계에서 처음으로 세금이란 말이 없어진 나라에서 우리 인민들이 살게 되였다.

보고 듣는 모든것이 기쁨이고 자랑이였다. 흐르는 날과 달마다 경사이고 명절같은 조국의 품이였다.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가 울려퍼지는 공화국은 만사람의 찬탄과 부러움을 받는 《사회주의모범의 나라》였다. 외국의 수많은 인사들이 조선은 지상락원이라는 말로도 약하다, 지상천국이라고 해야 한다고 아낌없이 부러움을 터놓는 현실이 너무도 긍지스러우시여 우리 수령님께서 하신 뜻깊은 교시가 오늘도 가슴을 울린다.

옛날사람들이 《천당》에 갈것을 바라고 《극락세계》를 동경하였는데 오늘 우리 나라와 같은 《천당》이 또 어디 있으며 우리 나라와 같은 《극락세계》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나라야말로 사회주의락원입니다. …

아름다운 조국의 노래란 인민이 부르는 삶의 찬가, 행복의 노래이다. 아무리 력사가 유구하고 땅이 넓다 해도 인민이 보람찬 삶과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를 두고 참다운 조국이라고 말할수 없다. 국력을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보다먼저 인민의 행복, 인민의 웃음인것이다.

행복넘친 인민의 웃음이 풍요한 가을처럼 펼쳐진 그 꿈같은 세월에는 명곡도 풍년이였다.

《내 나라》, 《청산벌에 풍년이 왔네》, 《황금나무 능금나무 산에 심었소》, 《행복한 내 나라》, 《세금없는 우리 나라》, 《내 나라는 좋아라》, 《번영하라 조국이여》, 《조국을 노래하네》, 《너보다 정다운 곳 나는 몰라라》, 《내 조국 한없이 좋아라》, 《만풍년의 우리 조국 온 세상에 자랑하세》, 《노래하자 나의 조국 비약하는 나라》, 《살기 좋은 내 나라》…

안겨사는 조국은 하나이건만 어찌면 그렇게도 많은 노래들이 폭포처럼 태여났던지. 마치 조국의 노래는 7음계가 아니라 수천만의 인민모두가 음계가 되여 창작되는 황홀한 음악세계와도 같았다. 이 세상의 아름다운 시어와 선률을 다 고르고 세계의 이름난 음악가들이 다 모여와 짓는다고 해도 정녕 사회주의 우리 조국에 대한 노래에 끝이 있었겠는가.

뭇사람들속에 유난히 빛나는 그대의 맑은 눈길이 나의 행복, 어린애처럼 그대와 함께 있는것이 나의 행복이라는 어느 한 나라의 애정가요를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인상깊이 기억하고있다. 하지만 개인적애정은 그 기쁨과 행복이 세월의 흐름과 함께 스러지버릴수도 있다.

변함없는 사랑, 끝없는 행복, 굳건한 긍지는 위대한 조국이 주는것이다. 그것은 조국은 만복의 터전이요, 후손만대의 보금자리이며 조국과 매 개인의 운명은 영원히 하나이기때문이다.

그 열화같은 사랑과 행복, 하늘같은 긍지가 어떤 신념을 낳는가를 가장 엄혹했던 고난의 시기는 이 나라의 악보에 뚜렷이 새기였다. 오늘도 다시 한소절한소절 부르느라면 잊을수 없는 추억들이 화면처럼 생생히 떠오른다.

불빛꺼진 마을과 거리들, 숨멎은 공장들, 먼이은 자연피해, 제국주의자들의 광란적인 반공화국압살소동…

시련을 겪는 인민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보시면서 우리 장군님 부르군 하시던 명곡 《봄을 먼저 알리는 꽃이 되리라》, 원쑤들이 북조선에서 매일 30발의 《미싸일탄》을 날린다고 아우성치던 노래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하리라》의 우렁찬 메아리, 《사랑하자 나의 조국》, 《붉은기높이 조선은 나간다》, 《조국과 나》, 《여기가 내 사는 조국이여라》…

한편한편이 수천수만발의 총포탄과 같았고 수백만의 식량을 대신하기도 했던 그 노래들가운데는, 우리 인민이 부르고불렀던 신념의 노래들속에는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는 노래들이 전주보석처럼 빛을 뿌리고있다.

《후대들을 위하여》,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 《미래를 사랑하라》, 《미래를 안고 살자》…

래일, 정녕 래일이 아니라면 우리의 전세대들이 왜서 허리띠를 조여매야 했겠는가. 한치땅을 위해 목숨도 바쳐야 했던 전쟁때도 그렇고 기계에서 밤이 나오는가고 종과놈들이 떠벌이던 전후복구건설시기도 그렇고 준엄한 선군길에서도 래일이 없었다면 우리 인민이 왜서 고생이라는 말, 희생이라는 값비싼 대가를 스스로 외우고 선택했겠는가.

그 래일이 곧 부강할 조국이였기에, 항락의 오늘을 좇아서는 목숨같은 나라를 지켜낼수 없기에 공화국의 모든 세대가 적의 화점을 한몸으로 덮듯 자기 생을 내맡겼다. 조국의 노래는 그처럼 고귀한 우리 인민의 생과 아름다운 희망, 위대한 행복이 가사와 선률로 되여 엮어진것이다.

공화국창건 70돐은 인민이 일편단심으로 지지하고 받들어온 조국의 빛나는 승리, 우리 인민이 기쁠 때도 불렀고 슬플 때도 불렀고 행복한 나날에나 준엄한 나날에나 심장으로 터쳐올린 조국의 노래들이 장중한 조화를 이룬 대교향악이다.

2

조국에 대한 노래는 그 어느 나라의 인민이든지 가장 신성하게 부르고 귀중하게 여기는 음악예술재보이다. 그 수많은 작품들에서 형상의 중심에 있는것은 거의 모두가 민족적특색이 짙은 생활세태마든가 고유한 산천경개, 독가적인 풍경같은것들이다.

70년의 공화국력사에 태여난 우리 조국에 대한 노래가 무려 수백편이나 된다는 점도 참으로 놀랍지만 그 노래들에는 다른 나라들에서는 찾아볼수 없는 중요한 사상예술적특징이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민이 사랑하는 조국의 노래들에는 어느것이라 할것없이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이 예술적형상의 중심에 정중히 모셔져있는것이다.

조국에 대한 노래는 본질에 있어서 나라와 인민을 령도하는 수령에 대한 노래, 인민이 흠모하고 따르는 민족의 어버이에 대한 송가이다. 그것은 인민의 참다운 삶과 행복, 나라의 존엄과 높은 위상은 곧 수령의 위대한 사상과 현명한 령도, 숭고한 덕망의 결실이기때문이다.

위대한 조국이란 위대한 수령의 품이다. 우리 인민에게 이러한 조국관을 음악예술적으로 처음으로 완벽하게 정립해주신분은 바로 우리 장군님이시였다. 조국해방전쟁이라는 카렐처럼한 난국을 겪으시는 나날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몸소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 《조국의 품》은 주체의 조국관을 확립하는데 있어서 영원불멸의 가치와 생명력을 가진다.

조국의 품은 곧 아버지장군님의 품이다! 명작의 진반을 관통하는 이 고귀한 진리는 어느 철학가, 예술명인도 발견하지 못했던 조국에 대한 철학, 인민의 심장파도 같은 대명제이다.

력사의 시선으로 투시해보자. 《인민공화국선포의 노래》는 음악예술적으로 보아도 결코 전제와 축적이 없이 폭발한 인민의 서정이 아니였다. 《인민공화국선포의 노래》 알에는 아 장군님 주신 땅 여루화 대루화 모두다 떨쳐나 발갛이가세라는 《발갛이노래》가 있고 공장의 녀성도 농촌의 녀성도 가슴마다 불타는 애국심품고 씩씩하게 뭉치자 장군님 두리에라고 노래한 《녀성의 노래》가 있다. 그 모든 노래들의 출발점을 다시 찾아가보면 거기에는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가 찬연한 금문자로 아로새겨져있다.

《김일성장군의 노래》, 해방된 조국강산에 제일먼저 우렁차게 울려퍼진 인민의 노래, 우리 조국력사에서 가장 많이 불리워진이 불멸의 혁명송가는 마땅히 조국의 노래의 제1번곡이다. 수백편에 달하는 우리 조국에 대한 노래들의 기본핵이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는 왜 조국을 그토록 열렬히 사랑하는가. 인민은 왜 공화국을 노래하여왔는가.

인민이 모든것의 주인이 되고 국가와 사회의 모든것이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국가이기때문이라고 말할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의 사회주의는 진정 무엇인가 하는것이다.

한생을 사회주의리념과 담을 쌓고 살아오다가 인생말년에 이르러서야 공화국의 품에 영주했던 한 재미교포는 언제인가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온 자리에서 쏘련과 유럽사회주의나라들과는 완전히 다른 식으로 지상락원을 일떠세웠는데 무엇때문에 제국주의자들이 비방중상하는 사회주의라는 표현을 그대로 쓰겠습니까, 사회주의라고 하지 말고 다른 주의라고 하면 안되겠습니까라고 무람없이 말씀올린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회상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토지개혁과 산업국유화도 우리 식으로 하였고 전후 농업협동화도 우리 식으로 하였으며 나라의 공업화도 우리 식으로 하였다, 우리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제브에 들라고 하는것도 들지 않았다, 우리가 쏘련과 유럽사회주의나라들과 같이한것이 있다면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표현을 쓴것밖에 없다고 뜻깊게 교시하시였다.

우리 식으로 건설한 사회주의, 주체의 사회주의!

진정 그것은 우리 인민모두를 가장 행복하고 존엄높은 인민으로 되게 하시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평생을 바쳐 창조하신 인민의 세상이고 이 지구상에 둘도 없는 인민의 요람, 은혜로운 태양의 품이다.

조국을 노래함에 있어 우리 인민이 그 바다같은 서정의 가장 깊은 곳, 가없는 하늘처럼 높고높은 행복의 절정에서 자애로운 어버이수령님을 목메여 칭송한것은 바로 이때문이다.

《아 수령님품이여》, 《오직 한마음》, 《수령님 모시고 천년만년 살아가리》, 《수령님 한품속에 우리는 사네》, 《수령님 사랑속에 우리 행복 꽃피네》, 《수령님은덕일세》, 《4천만은 수령을 노래합니다》, 《김일성장군님은 우리의 태양》, 《우리 수령님》…

수령님의 친어버이사랑속에 나라의 혜택이 하나, 둘 늘어날 때마다, 행복에 겨운 웃음이 마음의 오선지에 더 높은 소리표를 새길 때마다 인민이 부르는 고마움의 노래가 대하의 물결처럼 굽이쳤다.

그 자애로운 어버이의 사랑은 바다건너 이역의 아들딸들에게도 해살처럼 비쳐갔으만 이역의 아들딸들에게 보낼 돈이 림시외화계획에 들어간다는것을 아시고서는 아닙니다, 보내주어야 합니다, 당장 보내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공장을 한두개 못 짓는 한이 있더라도 이국땅에서 고생하는 동포들에게 아이들을 공부시킬 돈을 보내주어야 합니다라고 힘주어 말씀하시던 아, 아버지!

한 나라 국가수반이시기 전에 먼저 이렇듯 고마우신 어버이이시였기에 우리 인민은 그이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수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이라는 공식직함보다는 《위대한 수령님》, 《어버이수령님》, 《우리 수령님》이라는 친근한 존칭으로 더욱 많이 칭송하였다.

인민의 조국, 위대한 조국이란 바로 인민의 어버이가 계시는 나라이다. 이 행성에 나라는 수없이 많아도 조국을 노래한 대부분의 음악작품들이 산천경개나 고유한 민족적정서같은 일반적인 징표들로밖에 형상되지 못하는것은 바로 인민이 어버이라고 부르며 따를만 한 위인이 없기때문이 아니겠는가.

우리의 아버진 김일성원수님 우리의 집은 당의 품이라는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를 그리도 사랑하며 즐겨부르던 인민, 동해에 솟는 해를 비로봉에 걸어놓고 서해에 지는 달을 봉금포에 세워놓고 수령님을 천년만년 모시고싶은 간절한 소원을 노래하던 우리 인민이 조국과 수령, 자기자신의 운명에 대하여 다시한번 엄숙히 깨닫게 된 충격적인 사변이 1990년대초에 일어났다.

사회주의를 한다고 하던 동유럽나라들이 하루아침에 몰먹은 담벽처럼 무너져버렸다. 붉은기가 내려워지는것과 함께 사회주의조국도, 긍지높이 울리던 조국의 노래들도 없어졌다. 《나의 주소는 거리도 집도 아니요 나의 주소는 쏘련》이라고 노래하던 인민들속에서 여론조사를 해보니 현재의 나라를 조국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근 절반이나 나왔댔다는 사실도 그때의 일이다. 사회적으로 정동하며 안정된 일자리에서 근심모르고 살던 인민들이 한줌도 못되는 착취자들에게 또다시 굴욕을 당해야만 하는 그 기막힌 현실, 불신과 대립, 분렬과 류혈의 와중에 인민들이 정든 보금자리를 잃고 한치에 나앉게 된 눈물겨운 정상은 과연 무엇을 준절하게 깨우쳐주었던가.

그들이 조국이라고 부르던 땅이 력사가 유구하지 못했는가. 땅이 작고 인구가 많지 않았던가. 경제력에서나 군사력에 있어서도 결코 렐세한것이 아니였다.

세계의 쓰라린 현실은 우리 인민으로 하여금 심장으로 절감하고 사상적결론을 내리게 했다.

한 나라의 인민이 발아안을수 있는 최상의 영광, 최대의 행운은 위대한 수령을 모시는데 있다!

수령이 위대하면 설사 빼앗겼던 나라도 다시 찾을수 있고 성과 이름마저 다 없어졌던 노예들도 자주적인민으로 새로 태여날수 있지만, 세계에서 빛을 잃었던 약소국도 존엄을 되찾을수 있고 재더미우에서도 락원을 일떠세울수 있지만 위대한 수령을 모시지 못하면 세계의 현실이 보여주다싶이 강대했던 조국도 없어지고마는것이다.

바로 이런 력사의 피어린 철리, 가슴마다에 간직된 억천불변의 신념을 담아 온 행성을 진감시키며 우리 인민이 우렁차게 부른것이 명곡 《당신이 없으면 조국도 없다》이다.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꼭같으신 또 한분의 절세의 위인을 령도자로 높이 모신 긍지와 자부심이 일으킨 산악같은 격정의 분출이였으며 하늘땅이 얼백번 뒤집힌대도 김정일장군님을 운명의 어버이로 굳게 믿고 따르리라는것을 맹약한 조선인민의 선언이였다.

위대한 인민이 어떻게 죽음보다 더 힘겨운 제재와 봉쇄속에서 사회주의조국을 지켜냈는가를, 과연 무엇을 믿고 어떤 힘으로 승리를 이룩했는가를 따로 묻지 말라.

《하늘처럼 믿고 삼니다》, 《조선의 행운》, 《우리 아버지》, 《위대한 내 나라》, 《조선의 힘》과 같은 명곡들 하나하나가 바로 인민의 훌륭한 대답이다.

풀뿌리를 씹고 추위와 싸우면서도 단 한분밖에 안 계시는 아버지장군님의 안녕을 축원하며 인민은 《장군님 찬눈길 걷지 마시라》고 노래했고 직구에서 수십만 대군과 싸우며 그리운 장군님 품으로 달리고달린 영웅전사들은 최후의 시각에 자폭의 폭음으로 《김정일장군님 만세! 조국이여, 번영하라!》라는 장엄한 메아리를 남겼다.

은행구좌도 없이 늙은 몸으로 어떻게 북에 가서 살겠는가고 하는 회유의 물음에 나에게도 구좌가 있소, 그 신념의 구좌는 김정일장군님의 품입니다. 나는 황금을 버리고 그 품으로 갈것입니다라고 대답한 한 비전향장기수, 전세계가 바라보는 우승의 단상에 우뚝 올라 나는 김정일장군님을 마음속에 그리며 달렸다고 긍지높이 대답한 마라손영웅…

위대한 인민의 모습이란 바로 이렇것이다. 강대한 조국은 바로 이렇게 건설되는것이다. 조국건설의 주체가 인민이라면 강대한 나라는 바로 그 인민의 마음을 움직이는 수령의 위대함에서부터 건설되는것이다.

그렇듯 하늘같은 인민의 믿음과 기대를 안으시고 우리 장군님 멀고 험한 길을 얼마나 많이도 걸으셨던가.

낮에도 가시고 밤에도 가시고 이른새벽에도 떠나시고 눈비내려도, 바람이 불어도 걸으시였다. 그 어느 나라의 국가수반이나 정기적인 휴가도 있고 그때마다 가군 하는 휴양지들도 있건만 진정 조국의 운명, 인민의 운명을 전적으로 책임지신 어버이이시였기에 우리 장군님께선 단 한순간도 자신의 마음에 휴식구명을 내리신적 없으시였다. 적의 총구가 눈앞에 있어도, 아슬한 깔벼랑길에 차가 미끄러지고 사정없이 내려쪼이는 한여름의 폭양에 온몸이 땀으로 젖어와도 에돌지도 멈추지도 않으신 어버이의 그 길.

병사들이 부르는 노래 《내 나라의 푸른 하늘》, 《내가 지켜선 조국》을 들으실 때면 그리도 대견하시어 땐 선참 박수도 쳐주시고 뜨거움에 눈물도 지으시던 그이, 나의 병사들과 훌륭한 인민을 위하여 땀을 흘리며 강행군할 때가 제일 마음이 편하고 백날을 호강하는것보다 더 좋습니다라고 하시며 더욱 다그치시던 그 험난한 길에서 희망안고 이 길을 가고가리라는 노래는 얼마나 많이도 부르셨겠는가. 걸음걸음 나라의 운명과 천만년미래를 소중히 품에 안고 가신 길, 자욱자욱에 초인간적인 의지와 희생적인 헌신이 눈물겹게 새겨진 그 길을 따라 인민이 행복의 래일에로, 강국에로 출발옵쳤다.

우리 장군님께서는 이렇게 위대한 수령님 맡기고 가신 사회주의조국, 세상에 단 하나뿐인 인민의 나라를 지켜내시였다. 자신의 천만고생과 맞바꾸어 온 세상에 빛나는 사회주의강국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시여 후손들에게 물려주시였다.

그이의 강국념원이 활짝 꽃펴나는 조국은 오늘 번영의 꿈과 리상을 실현해나가는 직선대로에 확고히 들어섰다.

만사람이 우러러보는 전략국가의 지위에 당당히 오른 우리 조국은 그 번쩍이는 시선 한번, 엄숙한 목소리 한마디만으로도 세계의 질서와 대세의 흐름을 휘어잡고 력사의 방향을 그어나가는 강대한 힘과 의지를 지녔다. 만리마의 기상은 하늘땅에 차고넘쳐 그 비약의 속도력은 머나먼 앞날의 꿈도 오늘에로 보란듯이 앞당기고 조석으로 변이 나는 조국강산은 문명부흥의 새 절경을 펼치며 그림처럼 더욱 아름다워진다.

《희망넘친 나의 조국아》, 《사랑하노라》, 《우리는 만리마기수》, 《사회주의전진가》의 노래가 끝없이 울려나오고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대합창이 로동당만세, 사회주의만세소리와 함께 열광적으로 분출되는 이 환희로운 현실이 어떻게 시작되였던가.

과연 무엇인가. 기나긴 력사의 흐름에서 눈깜박할 순간과도 같은 이 몇해사이에 그처럼 불과보게 조국을 전변시킨 그 높은 리상, 불타는 열정, 미증유의 창조력은 어디서 시작되였던가.

김정은시대의 애국가 《조국찬가》!

우리 원수님께서는 5년전 9월의 그날에 벌써 찬란한 조국의 래일을 이 명작의 구절구절마다에 담으시였다.

…

그림같이 황홀하여 눈이 부신 땅과 바다
금은보화 가득한 전설의 나라
행복은 넘쳐라 인민의 조국
…

정녕 얼마나 생각이 많으셨으랴. 금수강산 내 나라를 인민이 안겨살 행복의 보금자리로 건설해오신 우리 수령님들을 사무치게 그려보시며 한자, 자신의 온넋과 심신을 다 바쳐 키어 수령님들의 강국념원을 풀어드릴 맹세를 담아 또 한자, 후손만대가 복락할 인민의 나라, 세상에서 가장 존엄높고 행복한 인민의 밝은 모습을 그려보시며 또 한자한자 써나가시였을 우리 원수님.

조국은 바로 그렇듯 간절한 념원의 열도, 그처럼 굳고굳은 맹세의 의지, 아름다운 리상의 실체대로 폭풍노도처럼 전진하고있다.

참으로 신비한 력사의 일치가 아닐수 없다.

건국의 어버이이신 우리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불소 불후의 고전적명작 《조선의 노래》를 지으시면서 《왜놈도 지주도 모두 없는 새 조선 자유의 강산에 우리 주권 세우자》라고 아름다운 꿈을 담으시였고 그 거룩한 대망을 실현하시여 빼앗겼던 조국강토를 찾아주시고 인민의 나라, 부강하는 주체의 사회주의국가를 일떠세우시였다. 우리 장군님께서는 10대의 시절 혁명의 길에 나서시던 첫 시기에 벌써 불후의 고전적명작 《조선아 너를 빛내리》를 창작하시면서 《누리에 빛나는 태양의 위업 대를 이어 해빛으로 이어가리라》라는 력사의 맹세를 다지시고 내 나라를 온 세상에 존엄높은 위대한 나라로 떠받들어올리시였다.

이 땅에선 모든 꿈 이루어지리!

우리 원수님께서 《조국찬가》에 쓰신 이 구절처럼 이 땅우에서는 지금 수령님과 장군님의 념원, 인민의 리상이 찬란한 현실로 꽃펴나고있다. 정치와 군사력에서만이 아니라 경제력에서나 과학기술력에서나 문명에 있어서도 명실공히 온 세계를 앞서나가는 최고의 국가건설목표를 내걸고 전면적부흥의 광활한 대로를 따라 내달리고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품속에서 창건의 고고성을 터치고 온 세상에 빛을 뿌려온 인민의 나라는 이제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세계으뜸의 사회주의강국으로 눈부시게 솟구쳐오를것이다.

※ ※

《인민공화국선포의 노래》로부터 《조국찬가》까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70년의 빛나는 력사를 아로새기는 사회주의나라, 인민의 노래속에 창건되고 인민의 노래와 더불어 백승떨쳐온 조국을 뜨겁게 안아보는 이 시각 우리 가슴속에 차오르는 격정은 무엇인가.

공화국이 창건되기 3년전까지만 하여도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세대들은 왜적에게 성과 이름마저 빼앗겼던 식민지노예들이였다. 그런 인민을 국가와 사회의 진정한 주인으로 떠받들어올리시고 승리와 영광의 오늘에로 이끌어주시고 힘차게 떠밀어주신 위대한 우리 수령님들은 영원한 인민의 태양이시다.

지나온 력사의 빛나는 로정과 같이 인민이여, 우리의 위대한 조국이시고 찬란한 미래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충정의 일편단심으로 더 잘 받들어모시자. 그이의 안녕을 위함이라면 천만이 산악같은 웅위의 성새를 이루고 그이의 구상을 꽃피우기 위함이라면 불타는 강도, 험산준령도 웃으며 맞받아나가자. 참다운 조국의 노래, 영광의 노래를 부르며 사회주의승리봉을 향하여 힘차게 앞으로!

무궁번영하라 조국이여, 사랑하는 땅, 은혜로운 태양의 품이여.

절세의 위인이신 우리 원수님을 대가정의 어버이로 높이 모시고 인민은 길이길이 살아가리라.

위대한 조국을 천만년 노래하리라!

리 건, 승 철 진

일군들은 멸사복무정신을 뼈에 새기고 인민을 위해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자

인민이 바란다면 돌우에도 꽃을 피우리

고풍군당위원회 일군들

우리 당의 인민사랑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의 길을 걷고있는 당일군들속에는 고풍군당위원회 일군들도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인민들의 요구와 리익을 사업의 절대적기준으로 삼고 오직 인민들이 바라고 좋아하는 일을 하여야 하며 무슨 일을 하든 인민들이 덕을 보게 하여야 합니다.》

고면천제방공사과정에 발휘된 군당위원회의 사업기풍과 일본새를 놓고 투철한 인민관을 지닌 일군들만이 인민을 위해 헌신할수 있다는것을 다시금 새겨보게 된다.

제방우에서 다진 신념의 맹세

두해전 어느날, 고면천제방을 걷는 한 일군이 있었다.

오금철군당위원장이였다. 그가 대줄기같이 쏟아지는 폭우에도 아랑곳없이 제방을 오래도록 걸고걷는데는 사연이 있었다.

바로 며칠전의 일이였다.

군당책임일군은 고면천주변에서 사는 한 주민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였다. 해마다 큰물이 나면 고면천제방뚝이 터져 일부 농경지들이 파괴되고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고있다. 군에서 제방공사를 몇번이나 한다고 하였지만 워낙 공사량이 너무 방대하다나니 시작을 떼지 못하는것 같다. …

군당책임일군으로 된지 얼마되지 않는 그에게는 주민의 이야기가 무심히 들려오지 않았다. 인민의 절절한 당부로 가슴길이 새겨졌다.

며칠후 고면천제방공사문제를 놓고 일군들의 협의회가 열리였다. 의견이 분분하였다.

숱한 자재와 로력, 기계수단들이 동원되여야 하는 조건에서 군자체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군에서 지금 벌려놓은 대상공사가 얼마나 많은가. 이 물길을 바가면서 발을 펴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한마디로 조건이 마련된 다음 공사를 진행하자는것이였다.

하지만 군당책임일군은 그것을 조건문제로만 보지 않았다. 우리 당의 군중로선을 관철할 투철한 각오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사상적문제로 보았다.

군당책임일군은 제방공사를 진행하는 실천과정을 통하여 일군들의 관점을 바로잡아주기로 결심하였다.

고면천제방공사가 곧 군당위원회의 결정으로 채택되였다.

이에 따라 군에서 있어보지 못한 대자연개조전투가 통이 크게 벌어졌다.

하지만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다. 새로 쌓아야 할 제방의 총길이만도 천여m이고 장석을 입혀야 할 면적은 근 7만㎡, 공사과정에 처리해야 할 토량은 무려 5만여㎥인 제방공사는 보통의 각오와 대심이 없이는 해낼수 없는 방대한 공사였던것이다.

장석을 쌓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

경험이 부족하다나니 군급기관들과 주민들이 쌓은 장석이 자주 무너져 여러번 재작업을 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게다가 물전기재와 로력, 자재의 부족으로 공사가 일정대로 추진되지 못하였다. 이렇게 되자 일부 일군들속에서 난관앞에 주저하며 동요하는 목소리들이 울리였다.

군당책임일군자신도 힘에 부쳤다. 마음속동요가 자신에게서도 일어나는것 같아 그는 저도 모르게 놀랐다. 고면천제방우에 다시 올라선 일군은 음지구의 공사장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공사장의 전경은 오직 자기 수평, 자기 당만을 굳게 믿고 그 어떤 시련의 광풍도 꿋꿋이 이겨내는 위대한 인민을 위해 선배한 이 길이 얼마번 정당하며 한몸을 짱그리 불태워서라도 기어이 완성해야 한다는 신념을 더욱 깊이 새겨주었다.

그날 길게 늘어서있는 고면천제방우에서 일군으로서의 책임감을 다시금 자각하며 군당책임일군은 더 굳게 맹세다지였다.

(인민이 우리 일군들을 지켜보고있다. 이 한몸 바쳐서라도 공사를 기어이 앞당겨 끝내리라!)

불같은 헌신, 완강한 실천력으로

군당위원회는 고면천제방공사가 진척되지 못하고있는 원인을 일군들에게서 먼저 찾았다. 그에 맞게 군당위원회는 방법론을 무단히 탐구하였다.

일군협의회의 장소가 바뀌였다. 사무실이 아니라 고면천제방에서 자주 진행되였다. 즉으나사나 공사를 기어이 완공하려는 군당책임일군의 화고한 결심이 비쳐졌고 일군들의 각오도 새로와지군 하였다.

독심으로가 아니라 과학기술적인 방법으로!

이런 목소리들이 협의회에서 울려나오군 하였다.

군당위원회의 작전과 힘있는 조직정치사업에 의해 합리적인 공법들이 탐구되고 혁신적인 방안들이 나왔다.

많은 면적의 장석을 쌓는 작업을 몇명의 기능공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무궁무진한 대중의 창조력을 발동하여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군급기관들과 동, 인민반별로 작업구간을 맡겨주고 그들속에서 기능이 높은 사람들을 골라 장석쌓기보여주기를 진행하였다. 100여개의 단위들에서 장석쌓기를 동시에 밀고나가는 광경이 펼쳐졌다. 강바닥파기를 진행할 때에는 군당위원회일군들부터 앞세를 폈다.

힘있는 경제선동의 포성이 울리고 질풍을 지고 달리는 군당일군들의 힘있는 호소가 전투장을 진감시켰다.

그야말로 온 군이 산악같이 떨쳐나섰다.

인민들의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자!

군당위원회는 이런 원칙에서 모든 사업을 설계하고 완강하게 실천해나갔다.

제방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때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설계에는 고면천을 리용할 주민들을 위해 제방에 계단을 일부 개소에만 놓게 되여있었다. 그런데 도면을 보고난 군당책임일군이 계단을 여러곳에 더 놓아주자고 하였다. 고면천이 보다 아름다와지면 주민들이 더 많이 찾아오겠는데 그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게 하자는것이였다. 그리하여 종전보다 더 많은 계단이 놓이도록 설계가 갱신되였다.

인민들을 위하는 일군들의 뜨거운 마음에 고무된 주민들은 자신들을 위한 사업인데 무엇을 아끼겠는가고 하면서 너도나도 떨쳐나섰다. 대중의 무궁무진한 창조력이 발휘되였다.

그리하여 몇년이 걸려도 못한다던 고면천제방공사를 단 석달만에 끝내는 놀라운 기적이 창조되였다. 여기서만도 여러 정보의 토지를 얻어냈으며 수천세대의 살림집과 많은 농경지를 큰물로부터 보호할수 있게 되였다.

인민들의 요구와 리익을 사업의 절대적기준으로 삼고 인민들이 바라는 일이라면 완강하게 내밀어 끝장을 보고있는 이곳 군당위원회일군들의 사업기풍은 참으로 훌륭하다.

본사기자 최 영 길

믿음과 정으로 이끌어주어

박천군 룡곡리당위원회에서

박천군 룡곡리에서 최근 소문없이 많은 일을 하고있다. 성과의 밑바탕에는 바로 군중과의 사업을 능숙하게 하여 농장원모두를 혁신자로 키우고있는 리당일군들의 남모르는 헌신이 깃들어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병든 자식, 상처입은 자식을 탓하지 않고 더 마음을 쓰며 사랑과 정으로 품어주고 아픈 상처를 감싸주며 또다시 일으켜내세워주는 품, 이것이 어머니 우리 당의 품입니다.》

몇해전 어느날이였다.

그날 박용철리당위원장은 온밤 잠들수가 없었다.

사연이 있었다.

낮에 리당일군은 농사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제8작업반에 나간적이 있었다.

그런데 리당위원장에게 인사를 하고난 한 농장원이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는것이였다. 새로 배치되다보니 리당위원장은 그 농장원에 대한 파악이 없었다. 그래서 작업반초급일군을 만나 그에 대해 물었다.

그의 이야기를 통해 농장원이 이전에 과오를 범한 동무라는것을 알게 되였다. 문제는 지난날 과오를 범한 그를 외면하는 작업반초급일군의 그릇된 태도였다. 크게 마음을 쓰지 말라고 별치않게 말하는 그의 이야기가 말해주고있었다. 시급히 바로잡아주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리당일군은 이튿날 아침일찍 다시 제8작업반으로 향하였다. 그러던 그는 저도모르게 발걸음을 멈추었다. 그 농장원이 벌써 포전에 나와 작업준비를 하고있는것이 아닌가.

리당일군은 생각되는것이 많았다. 잘못 살아온 과거와 결별하려고 남모르게 바쳐가는 그의 량심적인 행동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후 리당일군은 그가 일하는 포전은 물론 가정에도 자주 찾아가 신심과 용기를 잃지 않도록 고무해주었다. 날로 더해만가는 리당일군의 사랑과 정에 끌린 그 농장원은 스스로 속마음을 터놓았다.

사실 본의아니게 과오는 범하였지만 그는 자신을 뉘우치고 진심을 바쳐가며 일을 잘하기 위해 애를 써왔다. 작업반초급일군이 그에 대하여 알아주지 못하는것이 안타까왔지만 내색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어머니다운 심정으로 자기를 대해주는 리당위원장에게 무엇을 숨기겠는가고 하면서 농장원은 오히려 그런 생각을 했던 자신이 용졸하였다고 하는것이였다. 그리면서 맡은 일을 더 잘해나갈 결의도 다지였다.

그는 더욱 힘을 내여 일하였다. 그런 그의 소행을 리당위원회는 농장이 다 알도록 소개선전하였다. 어려운 일감이 나서면 남먼저 맡겨주기도 하였다.

이런 믿음과 사랑속에 그 농장원은 얼마후 농장이 아는 혁신자로 되였으며 그후에는 분조장으로 성장하였다.

이 과정은 작업반초급일군에게 대한 말없는 교양으로 되였다. 자극을 받고있는 그에게 리당일군은 마음속고충을 겪고있는 사람일수록 믿음을 주어야 하며 결함을 보기 전에 긍정적인 측면을 먼저 보고 내세워줄줄 알아야 한다고 따끔히 일깨워주었다.

지난 기간 뒤떨어진 농장원들과의 사업을 소홀히 하고있던 초급일군들도 큰 충격을 받았다. 하여 그들은 리당일군의 모범을 따라 군중과의 사업을 능숙히 하면서 모든 농장원들을 이끌어주어 집단의 전투력을 강화해나갔다.

일을 잘하지 못하여 말밥에 오르던 제4작업반 농장원 박동무를 모범농장원으로 키운 이야기도 있다.

그로 말하면 중등학원을 졸업한 후 부모들이 일하던 고향땅을 꽃피워갈 소중한 꿈을 안고 온 랑심적인 농장원이였다. 이런 긍정적인 면을 살려주기 위해 남먼저 그의 가정을 찾고 가정용품과 생활필수품을 마련해준 사람들이 바로 리당일군들이다. 그의 아름다운 꿈을 꽃피워주기 위해 작업반초급일군들도 포전에 나가 농사일을 배워주면서 품을 많이 들이였다. 얼마후 그는 혁신자대렬에 당당히 들어서게 되였다.

이렇듯 리당일군들뿐아니라 모든 초급일군들까지 떨쳐나 군중과의 사업을 잘하여 혁신자대렬을 늘이고있으니 왜 단위사업에서 혁신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인간의 랑심을 귀중히 여기고 믿음과 정으로 이끌어주는 사업은 이렇듯 중요하다.

본사기자 장 철 범

로동자들의 생활속에 비낀 어머니의 마음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 대형기계직장 초급당위원회에서

얼마전 우리가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 대형기계직장을 찾았을 때였다.

대상설비가공에서 혁신을 창조하고있는 비결을 묻자 로동자들은 뜻밖에도 이렇게 말했다.

자기들을 위해 바치는 일군들의 진정을 보면 알수 있다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인민을 위한 일밖에 모르고 인민을 위한 일을 성실하고 능숙하게 하며 인민을 위한 일에서 기쁨과 보람을 찾는 인민의 참된 복무자가 되여야 합니다.》

언제인가 가공4작업반의 최동무가 뜻밖의 일로 현장에 쓰러졌을 때였다.

이미전부터 말썽이던 신병이 도졌던것이다. 그런 그를 들쳐업고 병원으로 뛰여가는 사람이 있었다. 직장장 김석동무였다.

구급대책이 세워진 후 그가 의사들로부터 남포시의 어느 한곳에 환자의 몸을 추켜세우는데 좋은 귀한 약재가 있다는 말을 들은것은 한밤중이였다. 그는 즉시 그 약재를 구하기 위해 길떠날 차비를 했다. 밤도 깊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떠나도 되지 않는가 하는 사람들의 권고에 그는 말했다.

우리와 함께 일해온 오랜 기능공인 최동무를 위한 일인데 밤길을 걷는것이 무슨 큰일인가고.

동지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여기며 수십리 밤길에도 서슴없이 나서는 직장장의 뜨거운 진정에 사람들은 감동을 금할수 없었다.

그 진정이 명약이 되여서인지 최동무의 몸상태는 좋아졌다. 얼마후에는 완쾌되여 자기의 기대앞에 서게 되였다.

초급당위원회는 직장장처럼 모든 일군들이 종업원들을 위해 발이 닳도록 뛰는 미풍의 주인공이 되도록 잘 이끌었다.

한 기대공의 부주의로 부속품가공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였다.

리명환초급당위원장은 초급당위원들에게 과업을 주어 그 종업원을 추궁하기 전에 먼저 설비를 가공하던 과정을 자세히 들어보고 원인을 찾아주어 그가 스스로 결함을 찾고 분발해나서게 하였다.

이런 사업방법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

그 종업원은 가정사정을 앞세우면서 맡은 일에 전심하지 못했던 자신을 뉘우치였다. 그럴수록 초급당위원들은 정을 주고 믿음을 주면서 종업원을 이끌었다. 이렇듯 종업원들에게 진정을 기울인 이야기들은 많다.

지난 시기 뜻하지 않은 일로 사고를 냈던 가공1작업반의 선반공인 강동무가 또다시 활력을 찾고 분발하도록 이끌어준 사실이며 한 종업원의 아들이 급하게 앓을 때 일군들이 밤이 닳도록 뛰여 치료대책을 세워준 이야기, 멀리 외지에 동원을 나가있는 한 종업원의 살림집을 새집처럼 보수해준 이야기…

무심히 들을수 없는 이야기였다.

로동자들과 헤여진 후 우리는 곧 초급당일군을 만났다. 직장에서 일이 잘되고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알게 되였다고 하자 그는 웃으며 말했다.

《우리 시대의 일군들을 만나면 누구에게서나 들을수 있는 평범한 이야기랍니다.》

평범한 이야기!

그러고보면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는 우리 당의 숭고한 뜻과 정을 가슴속깊이 새기고 인민을 위해 한몸이 그대로 모래알이 되여 부려진대도 더 바랄것이 없다는 고결한 인생관을 체질화한 우리 시대의 일군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가.

이런 일군들이 있는 곳에서는 기적이 창조되기마련이다.

지난 기간 직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대형기계들의 부속품가공에서 제기되는 새로운 지구들을 수많이 창안도입하였다. 최근에는 소재가공을 빠른 기간에 진행하면서도 자재소비를 종전에 비해 훨씬 줄일수 있는 새 기술혁신안을 창안하고 받아들여 대상설비생산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켜나가고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다시금 확신하였다.

자식을 위하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모든 일군들이 자기 단위의 종업원들의 생활을 따뜻이 돌봐주는데 비약의 열쇠가 있다는것을.

본사기자 채 인 철

일감은 군중의 목소리에서

개천탄광 초급당위원회에서

우리가 개천탄광을 찾았을 때 그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화제에 올린것은 새로 생긴 샘물공급소에 대한 이야기였다. …

탄광의 한 일군은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었다. 그 어디서나 볼수 있는 자그마한 샘물공급소였다. 하지만 거기에 깃든 사연은 들을수록 뜨거웠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일군들은 인민의 요구, 대중의 목소리에 무한히 성실하여야 하며 언제나 인민을 위해 헌신하는 인민의 참된 심부름군으로 살며 일하여야 합니다.》

지난해 8월 리봉술초급당위원장이 일군협의회에서 운반갱지구에 샘물공급소를 건설하자는 안을 내놓았을 때였다.

일부 일군들은 좋은 일이라고 하면서도 선뜻 나서지 못하였다.

그들은 공사를 하자면 많은 자재와 로력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그 리유를 이렇게 말하였다.

샘물이 나오는 향산골지구에는 6세대의 종업원가족들이 살고있다. 모든것이 부족하고 생산도 긴장한 때에 몇몇 안되는 주민들을 위해 공사를 벌려놓았다가 석탄생산계획수행에 지장을 받을수 있다. …

초급당일군의 뇌리에는 문뜩 그 며칠전 새벽에 목격했던 일이 떠올랐다.

그날 갱막장에서 정치사업을 하고나와 운반갱을 지나던 그는 몇몇 주민들이 주고받는 말을 듣게 되였다.

《향산골에서 나오는 샘물이 우리 탄광지구에서는 제일 좋대요. 우리도 그 물을 마음껏 먹을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샘물을 종업원들과 가족들이 먹자면 방대한 공사를 벌려야겠는데 지금처럼 어려운 때에 어떻게 탄광에 손을 내밀겠어.》

초급당일군은 그들의 목소리를 새겨들었다. 거기에 군중의 요구가 담겨져있다고 보았기에 그는 샘물공급소건설을 일군들이 해야 할 몫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그길로 지배인과 함께 향산골에 올라가보았다.

샘물이 든 무거운 통을 지고 힘겹게 산중턱을 오르내리였을 사람들의 모습이 떠올라 자책을 금할수 없었다.

초급당일군은 해당 일군들을 통, 인민반들에서 달려나온 일군들과 근로자들, 가두녀성들도 공사를 함께 책임지는 립장에서 애국의 땀방울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다.

도안의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세멘트와 강재를 비롯한 건설자재들을 제때에 생산보장해주어 공사기일을 앞당기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설비생산을 맡은 단위들에서도 내무예비를 동원하고 대중의 열의를 적극 불러일으켜 샘물공장운영에 필요한 설비제작과제를 제기일안에 끝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도에서는 여러 생산공정들에 대한 설비조립이 끝나는데 맞게 제품생산을 위한 시운전준비도 동시에 내밀고있다.

일군들과 건설자들의 앙양된 열의에 의하여 샘물공장건설이 완공될 날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

특파기자 신 천 일

얼마후에는 운반갱지구에 샘물공급소가 생겨났다.

샘물을 공급받던 날 탄광종업원들과 주민들은 일군들의 헌신의 땀이 슴배여있는 공급소를 오래도록 떠나지 못하였다.

탄광지구에 새로 생긴 샘물공급소, 어디서나 볼수 있는 자그마한 공급소였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인민의 목소리에서 일감을 찾고 그들의 목소리에 무한히 성실함에 대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종업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뛴 이곳 초급당위원회일군들의 멸사복무정신의 결정체로 소중히 여겨졌다.

종업원들의 목소리에서 일감을 찾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애쓰는 초급당위원회일군들의 사업기풍은 무해천에 건설한 동갱다리와 서해천다리 그리고 지난해에 일떠세운 2층으로 된 축사와 미루라지서식장 등에도 어려있다.

이곳 초급당위원회사업은 일군들이 종업원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하자면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서 일감을 찾아야 한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본사기자 손 영 희

김 영 남 동 지 가 웰남사회주의공화국 주석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하노이

웰남사회주의공화국 주석

쩐 다이 꽝 동 지

나는 웰남사회주의공화국창건 73돐에 즈음하여 당신과 당신을 통하여 친선적인 웰남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귀국인민이 부강한 웰남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리라고 믿습니다.

당신이 건강할것과 책임적인 사업에서 성과를 거둘것을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주체107(2018)년 9월 2일 평 양

—새날전기공장에서— 본사기자 찍음

위훈을 떨치도록 대중을 불러일으킨다. 새형의 물전기재에 필요한 부속품생산에서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 샘물공장건설 마감단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인민을 위해 존재하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당입니다.》

우리 당의 인민사랑의 뜻을 높이 받들고 각 도들에서 샘물공장건설을 힘있게 내밀고있다.

강 원 도 에 서

강원도에서 인민생활에 적극 이바지할 배봉산샘물공장건설이 완공의 날을 가까이하고있다.

원산시안의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과 건설자들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에로 부른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착공의 첫삽을 박은 때로부터 얼마되지 않는 기간에 건축공사를 끝낸데 이어 설비조립을 마감단계에서 힘있게 내밀고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결정관철에 떨쳐나선 일군들과 건설자들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그들을 불러일으키는 정치사업을 힘있게 진행하고있다.

도당위원회와 시안의 책임일군들은 건설장에 자주 나가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주어 공사를 일정계획대로 내밀도록 떠밀어주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건설지휘부의 일군들은 통이 큰 작전과 박력있는 지휘는 오늘의 증산돌격운동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것을 명심하고 대중을 이끌고있다.

도의 일군들은 세멘트와 골재, 강재를 비롯한 자재들을 책임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고있다.

공사에 동원된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기일을 앞당길수 있는 여러가지 공법들을 받아들여 짧은 기간에 사무실청사와 후생시설, 생산건물공사를 불이 번쩍 나게 끝낸데 이어 설비조립을 본격적으로 내밀고있다.

원산시주택보수사업소를 비롯한 원산시안의 공장, 기업소들에서 달려나온 일군들과 건설자들이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고있다.

사무실청사와 후생시설건물공사를 맡은 단위들에서 사회주의경쟁의 불길높이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정신을 발휘하며 맡은 공사과제를 앞당겨 끝낸 기세로 계속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샘물공장건물의 특성이 살아나게 도에 흔한 원료로 외부마감미장공사를 진행하여 건물의 미학성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였다.

설비조립을 맡은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기술적요구를 철저히 지키기 위해 성실한 땀을 바치고있다.

원산시안의 공장, 기업소들과 통, 인민반들에서 달려나온 일군들과 근로자들, 가두녀성들도 공사를 함께 책임지는 립장에서 애국의 땀방울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다.

도안의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세멘트와 강재를 비롯한 건설자재들을 제때에 생산보장해주어 공사기일을 앞당기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설비생산을 맡은 단위들에서도 내무예비를 동원하고 대중의 열의를 적극 불러일으켜 샘물공장운영에 필요한 설비제작과제를 제기일안에 끝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도에서는 여러 생산공정들에 대한 설비조립이 끝나는데 맞게 제품생산을 위한 시운전준비도 동시에 내밀고있다.

일군들과 건설자들의 앙양된 열의에 의하여 샘물공장건설이 완공될 날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

특파기자 신 천 일

황 해 북 도 에 서

풍치수려한 정방산기슭에 정방산샘물공장이 자기의 면모를 드러내며 일떠서 도안의 인민들을 기쁘게 해주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샘물공장건설에 참가한 도안의 일군들과 도속도전청년돌격대원들은 완강한 공격전을 벌려 건물들에 대한 축조공사와 미장공사를 기본적으로 끝내고 설비조립을 위한 준비작업과 주변정리작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고있다.

정방산샘물공장은 인민들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 우리 당의 조치에 의해 일떠서는 또 하나의 인민사랑의 결정체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각 도들에서 수질이 좋은 샘물원천을 찾아 샘물공장을 건설하여 인민들에게 공급할데 대하여 간곡히 가르쳐주시였다.

우리 당의 숭고한 인민사랑의 뜻을 받들고 도당위원회에서는 정방산의 수정골에서 수질이 좋은 천연샘물원천을 찾은데 맞게 샘물공장건설을 빠른 기간에 끝낼 대담한 목표를 세웠다. 일군들은 도속도전청년돌격대가 샘물공장건설을 통채로 맡아하도록 하였다.

도당책임일군을 비롯한 도의 일군들은 건설장에 자주 나가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주고 돌격대원들을 위훈창조에로 적극 고무해주고있다.

공사지휘부의 일군들은 일정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공사를 완강하게 밀고나가고있다. 강철만동무를 비롯한 지휘부일군들은 돌격대원들속에 깊이 들어가 샘물공장건설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심어주는 한편 공사를 빠른 기간안에 끝내기 위한 전투조직과 지휘를 빈틈없이 짜고들고있다.

이들은 건설에 필요한 막돌과 자갈, 흔석화보를 선행시키면서 작업공정에 따르는 건설자재들을 제때에 보장하기 위한데 힘을 넣어 공사속도를 높여나가고있다.

지휘부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힘찬 돌격전을 벌려 단 보름동안에 사무실청사와 접수실건물의 기초굴착을 끝내였으며 40일 남짓한 기간에 벽체축조공사와 2천여m에 달하는 물관설치작업을 결속한 기세로 계속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샘물공장건설에 떨쳐나선 도속도전청년돌격대 5대대의 전투원들은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떨치고있다. 이들은 천년책임, 만년보증의 원칙에서 기본생산건물공사를 질적으로 해나가고있다. 앞선 건설공법들을 적극 받아들이면서 매 작업공정들마다에서 속도와 질을 보장하고있다.

선행공정들을 맡은 돌격대원들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면서 골재보장과 블로크찍기를 비롯한 맡은 작업과제들을 책임적으로 수행해나가고있다.

샘물공장건설이 마감단계에 들어섬에 따라 설비들과 운영에 필요한 조건보장을 맡은 도무역관리국, 도송배전부를 비롯한 도급기관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보다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총돌격전을 벌리고있다.

우리 당의 인민사랑의 뜻을 새겨안은 도안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의 힘찬 투쟁에 의하여 정방산샘물공장건설은 마감단계에서 진척되고있다.

특파기자 신 경 섭

곡식이 익는족족 거두어들일수 있게 가을걷이준비를 빈틈없이 갖추자

과학적인 작전과 완강한 실천력으로

강남군일군들의 사업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지금 우리 인민들의 투쟁열의는 대단히 높으며 여기에 일군들의 대담하고 과학적인 작전과 능숙한 지휘, 이신작칙의 일본새가 안받침되면 우리에게 점령 못할 요새도 뚫지 못할 난관도 없습니다.》

뜻깊은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반드시 넘쳐 수행할 드높은 열의 안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강남군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의 거세찬 불길속에 가을걷이와 낟알털기준비사업을 잘해나가고있다. 특히 트락또르를 비롯한 운반수단들의 수리정비를 예견성있게 내밀어 벼단과 낟알운반작업에서 혁신을 가져올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였다.

이 성과는 가을걷이와 낟알털기를 와닥닥 끝내는 여기에 알곡생산목표점령의 중요한 담보가 있다는 관점과 립장에서 모든 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어온 이곳 일군들의 과학적인 작전과 지휘, 완강한 실천력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가을걷이와 낟알털기준비에서 제일 중시하고 큰 힘을 넣어야 할 문제는 무엇인가.

군책임일군들은 사색을 깊이 하였다. 모두의 생각은 하나로 합쳐졌다. 가을걷이와 낟알털기를 앞당겨 끝내는데서 운반작업은 큰 몫을 차지한다.

때문에 군안에 있는 수백대의 트락또르를 비롯한 운반수단들의 수리정비를 힘있게 내밀어 가을걷이전에 말끔히 끝내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옳은 선택이였다. 올해 평양시안의 많은 단위들에서는 농업전선을 불심량면으로 힘있게 지원할데 대한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100대의 농률높은 이동식벼종합탈곡기를 성의껏 마련하여 강남군에 보내주었다. 이렇게 되여 군에는 이동식벼종합탈곡기를 백수십대나 갖추게 되였으며 모든 작업반들에서 탈곡장에서뿐만아니라 포전에서도 낟알털기작업을 동시에 진행할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마련되였다.

그럴수록 군의 일군들은 마음의 신들메를 더 바싹 조여맸다. 벼단운반만이 아니라 포전에서 털어낸 낟알을 제때에 운반하자고 해도 트락또르의 수리정비를 높은 수준에서 다그쳐야 한다.

방도는 무엇인가.

일군들이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대중의 심장에 불을 달고 모든 사업을 혁명적으로, 과학적으로 전개해나가라는것이 바로 당의 뜻이다.

이것을 명심한 일군들은 현실에 깊이 들어가 실정을 구체적으로 파악한데 기초하여 조직사업을 짜고들었다.

우선 당면한 여러가지 운반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도 트락또르수리정비를 질적으로 하기 위해 연구를 많이 하였다.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이 아무리 높아도 조직사업을 짜고들지 않는다면 큰 성과를 거둘수 없기때문이였다.

군일군들은 현실에 발을 든든히 붙이고 합리적인 방도를 찾아나갔다.

무엇보다도 모든 트락또르들의 년간가동률, 수리정형 등을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기술상태를 전면적으로 료해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트락또르대수리는 물질기술적토대가 충분히 갖추어진 군농기계작업소에서 집중적으로 진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중, 소수리는 협동농장들에서 자체의 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진행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여러개의 이동수리조를 조직하여 협동농장들에서의 중, 소수리를 적극 도와주도록 하였다.

계획을 이렇게 세우고 내미니 당면한 운반작업에 사소한 지장도 주지 않으면서 품이 많이 드는 트락또르들에 대한 수리정비를 여유있게 진행하면서도 그 질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수 있었다.

이신작칙은 천백마디의 말을 대신한다. 트락또르수리정비에 필요한 많은 부속품들을 해결하기 위해 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는 신관공장경영위원장을 비롯한 군일군들의 헌신적인 모습은 이 사업의 중요성과 의의를 모두에게 다시금 일깨워주는 힘있는 정치사업이 되였다.

일군들이 늘 현장에 나가 실지 걸린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제때에 풀어주니 트락또르의 수리정비사업에서는 날마다 실적이 부쩍부쩍 뛰여올랐다.

아무리 트락또르들의 수리정비가 잘되였다고 하여도 그 가동률이 절로 높아지는것은 아니다. 그 주인인 트락또르운전수들의 높은 책임성과 역할이 안받침될 때 더 큰 성과를 거둘수 있다. 따라서 트락또르를 직접 다루는 운전수들의 정신력발동이자 가동률의 높이이라고 할수 있다.

이렇게 문제를 세운 군일군들은 운전수들과의 사업에도 큰 힘을 넣었다. 일군들은 가을걷이시작전에 운전수들속에서 분전기제의 관리규정과 운행방법들에 대한 학습과 기술검사를 실속있게 진행하기 위한 사업을 앞세워나갔다.

중요하게는 모든 협동농장들에서 일군들이 올해농사를 빛나게 결속하는데서 운전수들이 맡고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해설해주는 사업을 계기에 맞게 진행하도록 하였다.

일군들은 이와 함께 공구와 예비부속품들도 충분히 갖추도록 요구성을 높여나갔다. 그리하여 트락또르마다에 각종 나사를 개를 비롯한 공구들이 그믄히 갖추어졌다. 또한 운전수들속에서 짬시간에도 점검과 정비를 짜고드는 기풍이 차넘치게 되였다.

여기에 맞게 일군들은 지구별로 나누어 여러차례의 트락또르대렬검열을 진행하고 우점함을 분석해주어 부족점을 시급히 고치도록 하는 사업도 놓치지 않았다.

이렇게 군의 일군들이 트락또르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면밀하게 조직하고 완강하게 밀고나간 결과는 좋았다.

트락또르들의 수리정비가 완전히 결속되는것과 함께 운전수들속에서 농촌기계화초병이라는 남다른 긍지와 책임감이 더욱 높아지고 기세도 앙양되였다.

이것이 곧 당면한 가을걷이와 낟알털기성과로 이어지리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뜻깊은 올해의 알곡생산성과를 놓고 우리의 충실성과 실천력을 당과 인민앞에 검증받자. 이런 투철한 각오로 심장을 불태우며 가을걷이와 낟알털기를 최적기에 와닥닥 끝낼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나가고있는 이곳 군일군들의 사업기풍은 좋은 결실을 안아올것이다.

본사기자 박영진

다수확의 중요한 예비

◇ 가을걷이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있다.

공화국창건 일흔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의 알곡생산목표점령을 위해 줄기찬 투쟁을 벌려온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성실한 노력이 열매를 맺고있다.

그 어느 농촌에 가나 다수확의 높은 목표밑에 농작물의 마지막비배관리는 물론이고 가을걷이와 낟알털기준비에 품을 들이고있는 농업근로자들의 미더운 모습을 볼수 있다.

여기에 맞게 일군들은 지구별로 나누어 여러차례의 트락또르대렬검열을 진행하고 우점함을 분석해주어 부족점을 시급히 고치도록 하는 사업도 놓치지 않았다.

한해농사는 봄내여름내 땀흘려 심고 가꾸어온 곡식을 말끔히 거두어들여야만 결속되게 된다. 지난 시기 농사에서 통장훈을 부른 농장, 작업반들은 다른 농사일들을 일정계획대로 해제낀것처럼 가을걷이와 낟알털기도 최적기에 와닥닥 끝낸 단위들이다.

현실은 가을걷이와 낟알털기가 한해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영농전투의 하나이며 당면하여 그 준비사업에 력량을 집중하는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 가을걷이와 낟알털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와닥닥 해제끼는데 알곡증산의 중요한 예비가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농업생산은 시기성을 요구하는것만큼 영농준비를 제때에 철저히 하고 씨뿌리기로부터 가을걷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농작업을 제철에 질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가을걷이와 낟알털기를 제때에 질적으로 와닥닥 끝내는가 못 끝내는가 하는데 따라 올해 알곡생산성과가 크게 좌우된다.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여 인민들의 식탁에서부터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높이 울려나오게 하자는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다.

당이 제시한 알곡고지점령을 위하여 정초부터 애국헌신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쳐 농사지은 낟알을 한알도 허실없이 나라의 쌀독에 채워넣는가 못 채워넣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오늘의 한시간한시간을 어떻게 살며 투쟁하는가에 달려있다.

가을걷이와 낟알털기준비도 시기가 있다. 지난 시기의 교훈은 준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가을걷이와 낟알털기전투에 들어서면 마가을까지 날자를 끌어 많은 알곡을 잃어버리게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나라쌀독을 책임진 주인이라는 자각을 안고 오늘의 하루를 열흘, 백날맞잡이로 일하는 사람이 시대가 요구하는 참된 애국농민이다.

◇ 모두다 애국의 한마음을 안고 떨쳐나 가을걷이준비를 빈틈없이 갖추어야 한다.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가을걷이와 낟알털기에 대한 관점을 바로가지고 그 준비사업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승리는 전투전에 마련된다는 말이 있다. 누구나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참호를 지켜선 높은 책임감을 안고 트락또르, 수확기, 탈곡기를 비롯한 농기계들이 온을 낼수 있는 방도를 찾아 예견성있게 대책을 세우며 쥐고 또 쥐여야 한다. 내부예비를 최대한 동원리용하여 중소농기구들을 충분히 마련해놓아야 한다. 포전별가을걷이적기를 정확히 선정하고 일정계획대로 내밀수 있는 만단의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농촌을 적극 도와주어야 한다. 해당 부문, 단위들에서는 농기계부속품생산과 수리정비에 필요한 전력과 자재를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로동자, 사무원들은 농업전선을 농업근로자들과 함께 책임졌다는 립장에서 농촌을 물질기술적으로, 로력적으로 힘껏 지원하여야 한다.

애국으로 가슴을 끓이는 농업근로자들이여, 모두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에로 부른 당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농사결속준비를 철저히 갖추어 가을걷이와 낟알털기를 적기에 질적으로 와닥닥 해제끼자!

성과적으로 끝낸 이동식탈곡기생산

삼천군에서

무슨 일이든지 성과를 거두자면 관점부터 바로 가져야 한다.

자체의 힘으로 많은 이동식탈곡기들을 만들어 농사결속을 지난 시기보다 훨씬 앞당겨 끝낼수 있는 담보를 마련한 삼천군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일본새가 그것을 보여주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의 격동적인 시대는 당정책관철의 제일기수인 일군들의 사업기풍과 일본새를 혁명적으로 개선할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농사경험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군책임일군들의 이목은 한곳에 집중되였다.

농장들의 알곡생산계획수행에 영향을 준 중요한 요인의 하나가 낟알털기를 빨리 끝내지 못한데 있다는 사실이였다.

중산간지대에 위치한 농장들은 대체로 포전들이 작고 분산되여있었다. 이런 조건에서 륙식을 탈곡장까지 들여와 낟알털기를 진행하다보니 기일도 오래고 낟알허실현상도 나타나게 되였다.

그러면 방도는 무엇인가. 명백하였다. 이동식탈곡기의 대수를 대폭 늘여 현장에서 낟알털기를 진행하도록 하는것이였다. 그러나 이들의 마음을 무겁게 한것이 있었다. 군의 실정에서 한두대도 아닌 그 많은 이동식탈곡기를 짧은 기간에 자체로 만들수 있겠는가.

이때 군당책임일군은 힘주어 말했다. 조건은 불리하고 모든것이 부족한것은 사실이다. 그보다 문제로 되는것은 조건타발을 앞세우는 우리 일군들의 그릇된 관점이라고 본다. 제힘을 믿고 떨쳐나서면 반드시 해낼수 있다.

그의 말은 일군들을 분발시켰다. 군일군들은 가능성을 따지기전에 무조건 해내야 한다는 립장에서 이동식탈곡기생산에 달라붙었다.

관점이 달라지니 실천도 새로와졌다. 군일군들은 이 사업을 땜빵기식으로가 아니라 앞을 내다보며 예견성있게 작전하고 내밀었다.

우선 농장들에서 이동식강냉이탈곡기는 작업반마다에 그리고 이동식벼탈곡기는 20여정보당 한대씩 차례지게 계획을 세우도록 하였다. 그래야 분조관리제안에서의 포전담당책임제가 은을 내게 하면서도 낟알털기를 와닥닥 끝낼수 있기때문이였다.

군일군들은 또한 이동식탈곡기가 지대적특성에 맞으면서 최대의 능률을 낼수 있게 혁신적인 안목에서 설계를 하도록 이끌어주었다. 군농기구공장을 비롯한 해당 단위의 일군들과 기술자, 로동자들이 이동식탈곡기제작전투에 떨쳐나섰다.

전투가 낮에 밤을 이어 벌어졌다.

군책임일군들은 수시로 전투현장에 나와 제작정형을 알아보고 자재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기동적으로 세워주면서 생산자대중을 적극 고무해주었다.

이에 힘을 얻은 해당 단위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능률높은 이동식탈곡기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는데 올해농사를 승리적으로 결속할수 있는 방도의 하나가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한사람같이 떨쳐나 날마다 성과를 확대해나갔다.

이런 불굴의 투쟁에 의하여 계획된 대수의 이동식탈곡기들이 생산되게 되였다. 결국 군에서는 가을걷이와 낟알털기를 짧은 기간에 와닥닥 끝낼수 있는 담보를 마련하게 되였다.

이곳 일군들의 경험은 당정책에 대한 옳은 관점을 가질 때 완강한 실천력을 낳게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방영진

중소농기구수리정비를 예견성있게

곽산군 협호협동농장에서

뜻깊은 올해에 당이 제시한 알곡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하기 위하여 가을걷이준비를 다그치고있는 곽산군 협호협동농장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잠도리가 만만치 않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농촌에서 봄내여름내 애써 농사를 지어도 가을걷이와 낟알털기를 제때에 하지 않으면 숱한 낟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느 작업반에 가보아도 농기구창고들마다 농기구들이 규모있게 들어차있는것을 볼수 있다.

농기구보관대에 질서정연하게 놓여진 농기구들은 보기만해도 흐뭇하다. 잘 닦아놓아 새것처럼 번들거리는 낫이며 삼태기들을 비롯한 농기구마다에는 알뜰한 주인들의 일솜씨가 그대로 비껴있다.

농장의 농기구준비에서 주목을 끄는것이 있다.

농장의 모든 분조들에서 발구를 준비하는것을 중요항목으로 정하고 내민것이다.

그럴만 한 리유가 있었다. 지난 시기 가을철에 비가 많이 내린 경우 트락또르들이 포전에서 가동하면서 지장을 받군 하였다.

이때에는 발구가 온을 낼수 있었다. 그런데 농장에서는 발구지, 낫, 맞돌이를 비롯한 중소농기구준비는 착실히 해놓았지만 발구는 미처 갖추어놓지 못하였다. 결과 버단운반과 낟알털기에 적지 않은 지장을 주게 되였다.

그때 일군들은 모든 경우를 예견하여 가을걷이준비를 착실하게 하지 못한 자기들의 일본새에서 교훈을 찾았다.

중소농기구준비에서 공간이 생기면 가을걷이적기보장에 지장을 주며 나아가서 알곡수확고를 높이는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것을 절실히 느끼였던것이다.

중소농기구준비는 결코 소홀히 대할 일이 아니다.

당이 제시한 알곡생산목표를 점령하는데서 농기계준비와 같이 중요하게 틀어쥐고나가야 할 사업이다.

이것을 명심한 일군들은 가을걷이를 앞두고 중소농기구준비에 더욱 품을 들이였다.

우선 좋은 교훈에 기초하여 발구준비를 중소농기구준비의 중요항목으로 제기하고 작업반 초급일군들을 앞세우고 그리고 모든 분조들에서 비가 온 뒤에 인차 버단실어들이기를 할수 있게 발구를 만들도록 하였다.

작업반들에서는 풀베기가 진행되는 속에서도 분조들에서 손재간이 있는 농장원들을 선발하여 발구를 비롯한 중소농기구를 만들도록 조직사업을 하였다.

이 사업이 가지는 중요성과 의의에 대하여 깊이 깨달은 농장원들모두가 적극 떨쳐나섰다.

모든 작업반의 초급일군들과 농장원들은 발구준비는 물론 발구지들의 수리정비를 짧은 기간에 끝내고 부족한 소농기구들을 더 만들기 위한 전투를 벌려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지금 농장의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이룩한 성과에 자만하지 않고 중소농기구준비를 보다 착실히 해나가고있다.

본사기자 김강철

혁신적인 안목으로

연산군 읍협동농장 제1작업반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농업부문에서는 과학적영농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농사일을 책임적으로 하여 당이 제시한 알곡고지를 기어이 점령하여야 합니다.》

연산군 읍협동농장 제1작업반에서 가을걷이준비를 빈틈없이 갖추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여기에는 작업반장 홍남일동무를 비롯한 작업반원들의 헌신적노력이 깃들어있다.

작업반에서 북데기를 처리할수 있는 탈곡기를 새로 만든 사실을 놓고도 잘 알수 있다.

지난 어느날 가을걷이준비정형을 하나하나 따져가던 작업반장의 머리속에 불현듯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북데기를 처리하게 된 탈곡기였다. 사실 작업반에서는 이 탈곡기를 이미전부터 리용해왔는데 능률이 높지 못하였다. 그리고 북데기에 섞여나가는 낟알도 얼마 되지 않기때문에 별로 관심하는 사람도 없었다.

하지만 작업반장의 생각은 달랐다.

귀중한 낟알을 한알도 허실없이 거두어들이는것이 바로 우리의 응당한 본분이 아니겠는가. 북데기에 섞여있는 낟알을 말끔히 털어낼수 있게 이 탈곡기를 다시 만들자.

그의 이 결심은 작업반원들모두의 지지를 받았다.

탈곡기를 만들기 위한 전투가 힘있게 벌어졌다. 모든것이 어려웠다. 그러나 작업반원들은 철관, 철근 등 필요한 자재를 자체로 마련해나갔다. 이들은 서로의 창조적지혜를 합쳐가며 제작전투를 다그쳐 탈곡기를 만들어냈다. 결과 작업반적으로 근 1t의 낟알을 더 얻어낼수 있는 담보를 마련해놓게 되였다.

이뿐이 아니다. 작업반초급일군들은 운반수단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분조마다 발구지를 1대씩 더 만들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면 트락또르가 들어가기 힘든 구석진 포전이 많은 조건에서도 가을걷이를 짧은 기간에 다그쳐 끝낼수 있었다.

작업반초급일군들과 작업반원들은 성과에 만족을 모르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면서 가을걷이와 낟알털기준비에 더 큰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본사기자 황철민

총련의 대표단들 만경대 방문

리명유 총련중앙감사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련일군대표단과 허명도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련 지부위원장대표단이 2일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유서깊은 만경대고향집을 찾은 그들은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나라의 해방을 이룩하시고 조국땅우에 자주, 자립, 자위의 강국을 일떠세워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에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소중히 보존되여있는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총련 지부위원장대표단 단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만경대를 방문하니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성스러운 혁명생애가 다시금 되새겨진다.

주체조선의 존엄높은 해외공민단체로서의 영예를 만방에 떨치고있는 우리 총련의 위용은 그이의 위대한 업적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우리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총련의 지부조직들을 그 어떤 천지풍파에도 끄떡없는 재일조선인운동의 지역적거점으로 억세게 다져나가겠다.

총련일군대표단 만경대 방문

총련 지부위원장대표단 만경대 방문

전국대학생최우등생들의 순회경험발표회 진행

전국대학생최우등생들의 순회경험발표회가 8월 18일부터 9월 2일까지 진행되였다.

전국적으로 선발된 모범적인 대학생최우등생들을 2개 조로 나누어 각도를 순회하면서 진행한 이번 발표회에서는 당의 학습제일주의구호를 높이 들고 학습과 과학탐구활동을 벌리는 과정에 이룩한 경험들이 발표되였다.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세 세기 유능한 인재가 될 높은 목표밑에 분발하여 배우고 또 배워 첨단과학기술지식을 습득하며 이를 실천에 구현하기 위한 탐구활동에서 성과를 달성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20대, 30대의 박사, 세계적인 발명가가 되겠다는 만만한 야심을 가지고 매일 학습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데 맞게 우월한 학습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지식의 탑을 높이 쌓을수 있었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최우등생의 영예를 빛내일수 있은 비결의 하나는 지칠줄 모르는 정열을 지니고 얼마나 많은 책을 읽는가에도 달려있다고 하면서 그들은 시간을 효과있게 리용하여 여러 분야의 책들을 빠짐없이 읽어나가는 과정에 자연과 사회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습득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또한 두가지이상의 외국어를 능숙하게 소유하고 콤퓨터학습에 힘을 넣으며 강의에서 배운 리론으로 새로운 과학기술적문제들을 구상하고 실천해나가는 능력을 부단히 높여온데 대하여 말하였다.

그들은 학습과 과학탐구활동을 밀접히 결합시켜 늘 앞서는 현실에 내려가 배운 지식을 능숙하게 활용해나가는 과정에 실천적의의가 있는 과학기술성과들을 달성할수 있었다고 강조하였다.

토론자들은 대학기간 성공의 열쇠가 자기자신에게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학습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과학기술강국건설에서 청년들이 선구자, 개척자가 될데 대한 당의 뜻을 실현해나갈 결의들을 표명하였다.

【조선중앙통신】

강동지구탄광련합기업소에서

증산돌격전으로 석탄생산에서 계속 혁신

강동지구탄광련합기업소에 5개년전략목표수행 증산돌격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일어번지고있다.

공화국창건 70돐을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할 일념안고 떨쳐나선 이곳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자력갱생, 전인분발하여 련합기업소적인 8월 석탄생산계획을 완수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석탄공업부문에서 생산적앙양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 화력발전소들과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석탄을 충분히 대주어야 합니다.》

련합기업소에서는 석탄증산으로 당중앙을 절사옹위하기 위한 투쟁에로 탄부들을 불러일으키는 선전선동공세를 진공적으로 벌리였으며 자체로 수백㎥의 동발나무를 보장하고 자력갱생기지들을 튼튼히 꾸려 생산을 활성화할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았다.

일군들은 증산돌격운동의 돌파구를 열기 위해 막장마다에서 착암기를 틀어쥐고 이신작칙으로 대중을 이끌었다.

강동탄광의 탄부들이 집단적혁신을 일으켜 8월 석탄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탄광의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정밀주조에 의한 정머리생산기지를 꾸려놓고 굴진에 필요한 정머리를 자체로 생산하여 다른 탄광들에도 공급함으로써 련합기업소적인 석탄생산을 높이는데 한몫 단단히 하였다.

혁신갱, 혁신2갱의 탄부들은 련속천공, 련속발파로 굴진성과를 계속 확대하면서 교대당 석탄생산실적을 부쩍 끌어올려 8월 27일까지 월계획을 결속하였다.

먹산탄광에서도 증산투쟁, 창조투쟁, 돌격투쟁이 맹렬히 벌어졌다.

송가3갱, 전진갱의 탄부들은 내부예비를 최대한 탐구동원하고 소대별사회주의증산경쟁을 활발히 전개하여 날마다 계획을 넘쳐 수행하였다.

화력탄보장에서 큰 몫을 맡고있는 흑령탄광 일군들과 탄부들도 굴진과 채탄을 앞세우고 석탄운반능력을 높이기 위해 창조적지혜를 합쳐가며 일별전투계획을 어김없이 완수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모두다 사회주의애국공로자들처럼 살며 투쟁하자!

불같은 사랑과 헌신으로 당의 보건정책을 받들어가는 참된 간호원

은천군인민병원 간호원 안경실동무에 대한 이야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우리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는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묵묵히 자기가 맡은 초소에서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난 30여년간 누가 알아주건말건 티끌만 한 사심도 없이 환자치료에 뜨거운 사랑과 정성을 기울이고 사회와 집단, 나라를 위한 좋은 일을 스스로 찾아하고있는 한 평범한 간호원에 대한 이야기가 사람들의 가슴을 세차게 울려주고있다. 한두해도 아니고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세월을 세번씩이나 맞고보내며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자기의 모든것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는 은천군인민병원 간호원 안경실동무, 그의 고결한 삶은 당의 뜻을 받들어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지켜가는 우리 인민의 정신세계가 얼마나 숭고한가를 다시한번 깊이 새겨주고있다.

자기를 아낌없이 바친다는것은…

안경실동무는 평범한 로동자가정에서 나서자랐다. 그의 아버지는 한생을 농기계작업소에서 성실하게 일한 공로자였다.

하기에 어린적 그의 눈동자에 띈 처음 비낀것은 아버지의 거룩한 손이였으며 그의 동심에 제일먼저 자리잡은것도 굳적인 로력혁신자로 떠받들리우는 아버지에 대한 남다른 자랑이였다. 긴장한 생산전투로 늦도록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를 찾아 어머니가 무려준 밥함을 들고 일터를 찾을 때마다 아버지와 함께 일하는 로동자들은 그의 등을 두드리며 이렇게 말하군 했다.

《우리 경실이가 또 이동봉사를 나왔구나. 정말 용하다. 경실이도 이제 크거들랑 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후 안경실동무의 아버지는 도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받았다. 그리고 전국농업대회를 비롯하여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진행된 여러 대회에 참가하는 영광을 지니였다. 어느해인가 안경실동무는 방안에 정중히 모신 영광의 기념사진앞에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은적이 있었다.

《뜨락또르랑 모내는기계를 수리하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나요?》

그때 아버지는 철없는 어린 딸에게 말했다.

《경실아,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 하는것보다 어떻게 일하는가가 더 중요하단다.》

비록 사람들의 눈에 쉽게 띄지 않는 평범한 일터에도 그곳을 당이 맡겨준 혁명초소로 여기고 한생을 아낌없이 바치는것, 바로 거기에 삶의 보람과 영예가 있다는것을 아직은 다 알수 없는 나이였다. 그러나 아버지처럼 바르게 살 때, 비록 수수한 작업복차림으로 늘 손에 기계기름을 묻히고 살지만 나라를 위해 성실하게 일하면 그런 사람은 대중의 존경을 받는 훌륭한 사람으로 될수 있다는것을 그는 알았다.

그후 중학교를 졸업하고 도보건간부학교(당시)를 나온 안경실동무는 은천군인민병원 외과에서 간호원으로 일하게 되였다. 첫 출근을 하는 날 안경실동무는 산뜻한 위생복을 입은 자기 모습을 거울에 비쳐보며 마음다졌다.

(나도 아버지처럼 자기 일터, 자기 초소를 지켜 한생을 성실하게 살리라.)

그러나 맹세가 곧 실천으로 이어지는것은 아니였다. 그가 군인민병원에서 일하기 시작한지 며칠후 첫 야간근무를 설 때였다.

어느덧 밤도 이슥해지고 새벽녘이 가까와올무렵 멀안간 다급한 발걸음소리와 함께 담가를 든 여러명의 사람들이 병원으로 들어섰다. 담가에는 뜻하지 않은 일로 사경에 처한 환자가 실려있었는데 많은 피를 흘린 환자는 의식이 없었다. 시급히 수혈대책을 세워야 했다.

의사의 지시에 따라 안경실동무는 서둘러 환자의 혈관을 찾기 시작했다. 그러나 시간이 얼마간 흘렀지만 안경실동무는 끝내 수혈에 필요한 혈관을 찾지 못했다. 환자의 혈압과 맥박이 거의나 알리지 않기때문이였다. 안경실동무의 이마에서는 땀이 비오듯 흘러내렸다. 사람들은 불안한 눈길로 환자와 간호원을 번갈아보았다.

숨막힐듯 한 긴장과 침묵, 시시각각으로 떨어지는 환자의 생명지표…

부득이 병원에서는 피부절개의 방법으로 수혈을 진행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날 안경실동무는 뼈저린 자책속에 모대기였다. 자기가 선 초소가 얼마나 중요하며 간호원의 임무가 어느만큼 무거운가를 실지체험으로 느꼈다. 그리고 학교에서 배운것을 가지고도 림상실천에서 얼마든지 자기 할바를 다할수 있다고 자부해온 자기가 못내 부끄럽게 여겨졌다.

그후 안경실동무는 전혀 딴 사람이 된듯싶었다. 그는 걸을 걸으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지어 잠자리에 들어서도 어떻게 하면 맡은 임무를 더 잘 수행할수 있겠는가에 대해 사색과 탐구를 멈추지 않았고 짬시간만 있으면 자기의 실기수준을 높이기 위해 아글타글 애썼다. 그는 매일이다싶이 야간근무를 섰고 중환자가 들어오는 때면 자진하여 환자를 맡아나섰다.

언제인가는 이런 일도 있었다. 하루는 퇴근하여 집에 들어온 안경실동무가 저녁상을 물리자 바람으로 느닷없이 전등불을 끄는것이였다.

《아니, 초저녁에 불은 왜 갑자기 끄는거냐?》

식구들모두가 어둠속에서 어안이 벙벙한채로 있는 속에 미안한 어조가 비낀 불쾌딸의 목소리가 방안에 울렸다.

《오늘부터 눈을 감고서도 감각만으로 혈관을 찾는 능력을 키우려고 해요.》

안경실동무는 나이와 성별이 각각인 집식구들처럼 좋은 실습대상이 없다고 생각하였다.

군인민병원 간호원으로 일하는 나날 그는 단순히 자기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는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외과에서 일하던 그가 수술장간호원으로 일하기 시작한지 얼마후였다. 위급한 환자에 대한 수술도중 뜻밖에도 많은 피가 요구되였다. 이때 환자와 피형이 같은 안경실동무가 서슴없이 자기의 팔에 수혈침을 꽂았다.

환자의 얼굴에서 혈색이 돌고 가족들이 달려와 너도나도 고마움의 인사를 할 때 안경실동무는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진 보건일군의 한사람이라는 긍지와 자부심, 간호원된 영예와 보람으로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날 아버지는 안경실동무에게 말했다.

《이제야 우리 딸애가 사는 맛을 알게 된가부다. 경실아, 전화의 나날 통지를 위해 자기의 피도 서슴없이 바친 안영애간호원의 이야기를 한갖 지나간 일로만 여기지 말거라. 인간의 생명을 책임진 보건일군에게는 비록 평화로운 시기라 할지라도 더운 피와 땀 지어 목숨까지 기꺼이 바쳐야 할 시각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인간생명의 기사인 보건일군이 사회앞에 지닌 자기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더운 피와 땀 지어 목숨까지 바칠 각오를 가져야 한다!

이것은 안경실동무가 한생 심장속에 간직하고 사는 삶의 지론, 좌우명으로 되였다.

지난 30여년세월 안경실동무는 언제나 자기를 잊고 살았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시라면 피와 살을 서슴없이 바쳤고 가정을 이룬 후 참기 어려운 고난과 시련이 닥쳐왔을 때에도 한가정의 살림살이를 돌보기에 앞서 자기가 맡은 환자들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 온갖 정성을 기울이였다.

어느덧 쉰고개를 넘긴지도 오랜 그의 몸 여러 군데에는 아직도 사연깊은 흐물자리들이 그대로 남아있다. 지금으로부터 수십년전 화상당한 한 평범한 농장원에게 자기의 피부를 이식한 때로부터 오늘까지 안경실동무가 환자들에게 바친 피와 살을 어찌 그 면적과 량을 표시하는 수자로만 헤아릴수 있겠는가.

《수십년간의 간호원생활을 통하여 저는 환자들을 친혈육으로 대할 때, 자기의 부모나 형제, 자기의 친자식처럼 여길 때 그러한 정성과 헌신으로는 고치지 못할 병이란 없다는것을 심장으로 깨달았고 불같은 인간애는 죽음도 이긴다는것을 진리로 새겨안았습니다.》

그는 34년이라는 기나긴 나날을 이런 자세와 각오로 헌신해왔다. 그에게는 수시로 입원하고 퇴원하는 환자들모두가 부모형제이고 자식이였으며 더없이 귀중한 혁명동지였다.

우리는 한 평범한 간호원의 30여년세월을 통하여 심장으로 새겨안게 된다. 사회와 집단을 위해, 남을 위해 자기를 바친다는것은 자기의 귀중한 모든것 지어 목숨까지도 기꺼이 바치는 사심없는 희생이고 무한한 헌신이라는것을.

《우리 어머니》

오늘 은천군인민병원 산부인과 간호원실에 들어서는 사람들은 이제로은 풍경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방안이 좁다하게 차곡차곡 쌓아져있는 새 이불들과 애기옷, 미역과 산물을 비롯하여 산모들의 건강에 좋은 영양식품들…

비록 어디서나 볼수 있는 수수하고 평범한것들이지만 거기에는 군인민병원과 멀리 떨어진 산골마을에서 온 산모들과 부모가 없는 산모들을 위해 친어머니의 정을 기울이는 안경실동무의 뜨거운 마음이 소중히 깃들어있다.

군인민병원의 외과와 수술실에서 일하던 안경실동무가 산부인과에 옮겨온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다. 퇴근을 앞두고 어느 한 임원호실에 들어서던 그는 무춤 걸음을 멈추었다. 방금 몸을 푼 한 환자가 두눈에 눈물이 그렁한채 흐느끼고있었던것이다.

안경실동무는 별다른 생각없이 그에게로 다가갔다.

《울지 말아요. 해산후에 눈물을 흘리면 젖이 잘 나오지 않는답니다.》

그러나 다음순간 산모가 우는 사연을 알게 된 그는 마음이 무거워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나들이를 떠났던 그 산모가 갑자기 진통이 시작되는 바람에 군인민병원으로 급히 실려오다나니 해산준비를 전혀 하지 못했던것이다. 그의 친정집은 읍으로부터 50여리나 떨어져있었다.

안경실동무는 더 다른 생각을 할새없이 종주먹을 부르쥐고 집을 향해 달음박질쳤다. 그리고는 방안에 들어서기 바쁘게 이불장에서 며칠전에 새로 꾸민 이불을 통채로 꺼내놓았다. 안해의 경황없는 행동에 한동안 얼떠름해있던 남편이 조심스레 물었다.

《대체 무슨 일이요? 엊그제 꾸민 새 이불은 왜 와락와락 잡아뜯으면서 그러오?》

그날 자기 손으로 직접 애기를 기다려 자물쇠가 걸려있는 출입문곁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나어린 오누이를 옆집아주머니가 데려다 저녁밥을 먹여주고 잠까지 재워주는 일이 한두번이 아니였고 어쩌다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있는 날이면 자식들은 《오늘은 우리 집 명절이지요?》라고 하며 너무 좋아 어쩔줄 몰라했다.

그가 지금껏 산모들에게 안겨준 애기이불과 애기옷이 셀수 없다고 하니 거기에 스며있는 정성과 헌신을 어찌 한두마디 말로 다 이야기할수 있으랴.

안경실동무 (왼쪽에서 두번째)

산모들뿐이 아니였다. 안경실동무는 부모잃은 아이들이 병원에 입원할 때마다 그들의 친어머니가 되여 온갖 사랑과 정성을 아끼지 않았다. 한번은 그가 몸이 허약한 아이를 위해 품들어 영양식품을 마련해가지고 병원으로 나가려고 할 때였다. 부엌에서 풍겨오는 고소한 냄새에 끌린 문턱에 앉아 어머니의 거동을 지켜보던 일곱살 잡힌 맏이 금성이가 느닷없이 이렇게 묻는것이였다.

《엄만 나나 은경이보다 병원에 있는 아이들이 더 곱나?》

나어린 아들의 뜻밖의 물음에 한동안 할 말을 찾지 못하던 안경실동무는 그를 꼭 그러안으며 속삭였다.

《금성아, 너나 은경이에게는 아버지, 엄마가 있지 않느냐. 병원에서는 지금 부모가 없는 네또래의 아이가 심하게 앓고있단다.》

지금으로부터 10여년전 은천군인민병원으로 군사임무수행중 뜻밖의 일로 심한 부상을 입은 한 군인이 실려왔다. 안경실동무는 병사의 침상곁에서 살다싶이 하였다. 치료의 나날 환자의 소생을 위해 피와 살도 아낌없이 바친 그는 전정 병사의 고향집어머니였다.

이것이 인연이 되여 안경실동무는 초소의 군인들과 헤래야 헤여질수 없는 정을 맺게 되였다. 몸에 좋은 보약이 생겨도, 색다른 음식이 생겨도 그는 병사들을 먼저 생각하였고 국가적명절과 기념일이면 가정에서 원호물자를 성의껏 마련하여 초소에 보내주군 하였다.

군인의 영예군인들에게 바쳐진 그의 지성은 또 얼마나 뜨겁고도 진실한것인가. 조국보위초소에서 청춘을 빛내인 녀성영예군인들은 누구보다 더 아름답고 행복해야 한다며 그들을 위해 기울인 사랑과 정성을 다 전하자면 끝이 없다.

유치원어린이로부터 나이지숙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를 아는 군안의 사람들모두가 친근하고 스스럼없이 《우리 어머니》, 《우리 간호원》으로 부르는 안경실동무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온 나라 전체 인민이 화목한 대가정으로 사는 사회주의 내 조국이 왜 그토록 소중하며 사회주의보건제도가 어찌하여 그렇듯 훌륭한가를 다시한번 심장으로 새겨보게 된다.

* *

우리 당은 수십년세월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보건제도를 지켜 자기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쳐온 은천군인민병원 간호원 안경실동무에게 사회주의애국공로자의 영예를 안겨주었다.

《우리》라는 정다운 부름과 더불어, 어머니조국을 위해 더 많은 땀을 바칠 각오를 안고 병원문을 나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밝은 모습과 더불어 오늘도 인간사랑의 이야기를 아름답게 엮어가고있는 안경실동무, 조국과 인민은 바로 이런 삶을 시대의 자랑으로 값높이 내세워주는것이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리남호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이바지할 마음안고 수산물가공품생산을 다그치고있다.
—갈마식료공장에서— 본사기자 한광명 찍음

뜨락또르와 함께 40여년

평원군 상송협동농장 기계화작업반의 뜨락또르운전수들인 리광수, 최덕성동무들은 농장이 자랑하는 농촌기계화초병들이다.

40여년전 고향땅을 살기 좋은 사회주의선경으로 꾸려갈 희망과 포부를 안고 뜨락또르운전수가 된 그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뜨락또르관리와 운전에서 높은 책임성을 발휘해오고있다.

그들은 늘 예비부속품들을 충분히 장만해가지고다니면서 짬시간마다 수리정비를 정상화하여 뜨락또르의 만가동을 보장하고있다.

수십년세월 농촌기계화초병의 영예를 안고 새 세대 뜨락또르운전수들도 많이 키워낸 그들에게 있어서 뜨락또르는 전투무기나 다름이 없다.

언제나 포전마다에서 뜨락또르의 발동소리를 높이 울려가는 나날에 그들은 농장에 없어서는 안될 사람들로 집단의 사랑과 존경을 받고있다.

오늘도 그들은 공화국창건 70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훌륭한 농사작황을 마련하기 위해 뜨락또르와 함께 대오의 앞장에서 내달리고있다.

로농물신원 한성룬

독자의 편지 훌륭한 청년입니다

지난 4월말 어느날 저녁 제가 담임한 학급의 한성훈학생은 그만 깊은 강물에 빠지게 되였습니다.

다급한 그 순간 다리우에서 다짜고짜로 뛰여내리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헤엄쳐 접근해갔을 때 한성훈학생은 그만 물속으로 쑥 빠져들어갔습니다.

참으로 위기일발의 순간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세찬 물살속에서도 있는 힘을 다하여 물속으로 들어가 끝내 아이를 구원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주변에 모여온 사람들과 함께 급히 아이에 대한 구급대책을 세웠습니다.

사람들이 직장직위와 이름을 묻자 그 청년은 이런 일은 우리 시대 청년들이라면 누구나 다 할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서 이름도 남기지 않고 가던 길을 재촉하였습니다.

어기저기 수소문하던 끝에 우리는 그 청년이 인민보안성 아래단위 로동자 황은철동무라는것을 알게 되였습니다.

후에 안 일이지만 그는 이전에도 물에 빠진 어린이를 구원해준 아름다운 소행의 주인공이였습니다.

중학시절에도 그는 뜻밖의 정황속에서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초상화를 안전하게 모셔내옴으로써 사람들을 감동시켰다고 합니다.

그러고보면 이번에 발휘된 황은철동무의 소행은 결코 그 어떤 일시적인 충동에 의해서가 아니라 언제나 누가 보건말건 조국과 인민을 위해 자신을 서슴없이 바칠줄 아는 숭고한 정신세계의 발현이였습니다.

정녕 이런 청년들이 무성한 숲을 이루고있기에 우리 조국은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의 위용을 높이 떨쳐가고있는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우리 청년들을 만사람을 감동시키는 미덕의 주인공들로 키워준 어머니당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함흥시 해안구역 룡암고급중학교 소학반 교원 박혜심

정다운 부름속에 사는 긍지

평성시모체양묘장에서 들은 이야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서로 돕고 이끌며 단합된 힘으로 전진하는 우리 사회의 본태와 대풍모를 적극 살려나가야 합니다.》

지난 5.1절날 체육유희오락경기준비를 하던 평성시모체양묘장 청년들은 시내로 향한 길가에 녀인들이 보이자 일제히 출달음을 놓았다.

《어머니—》

이고지고온 짐들의 무게는 감감 잊은듯 앞을 다투어 어푸러질듯 달려오는 청년들을 향해 허겁지겁 재걸음을 놓는 녀인들, 그들은 평성시모체양묘장 청년들이 어머니라고 부르며 따르는 중덕동의 녀맹초급일군들이였다.

서로 얼싸안고 돌아가는 그 모습은 꼭 피를 나눈 어머니와 아들의 모습그대로였다.

중덕동 초급녀맹위원장 박향숙동무와 녀맹초급일군들이 시모체양묘장 청년들과 인연을 맺게 된것은 그들의 평성중등학원 시절부터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평양애육원을 다녀가신 그해 평성중등학원을 찾았던 중덕동 녀맹초급일군들은 후더워오르는 심정을 금할수 없었다.

그날 박향숙동무는 부모잃은 아이들은 누구보다 정을 그리워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터놓았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높은 뜻을 정히 받들어 우리 원아들의 친혈육, 친어머니가 되여 그들을 나라의 훌륭한 역군으로 키우는것이 어때요?》

그의 마음이자 녀맹원들의 하나같은 심정이였다.

그들은 평성중등학원의 한개 학급 원아들을 맡아안았다.

그때부터 박향숙동무를 비롯한 중덕동의 녀맹초급일군들은 명절들과 원아들의 생일날은 물론 수시로 원아들을 찾았다.

맛있는 음식들과 생활용품들을 안고 찾아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다정하게 원아들의 학습정형, 생활정형을 알아보기도 하였으며 원아들의 목소리와 얼굴표정을 놓고도 깊이 마음쓰며 정과 사랑을 부어주는 그들에게서 원아들은 어머니의 사려깊은 마음과 정을 온몸으로 느끼군 하였다.

온갖 정과 따뜻한 사랑을 기울이는 중덕동 녀인들을 원아들은 무람없이 어머니라고 부르며 따랐다.

어머니!

원아들의 정깊은 부름에 중덕동 녀맹초급일군들은 가슴이 뻐근해왔다.

원아들에 대한 사랑과 정은 1년후 중등학원을 졸업한 그들이 시모체양묘장에 진출한 그때부터 더욱 각별하고 극진해졌다.

어머니의 사랑은 멀리에 있는 자식들에게 더욱 자별한것이다.

그들은 나무심기, 토지개량 등 녀맹돌격대활동을 벌리는 속에서도 사회생활의 첫걸음을 뗀 그들이 하나를 생각하고 한걸음을 걸어도 받아안은 은덕에 보답할 일념으로 심장을 불태우도록 채우쳤고 모체양묘장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하고 더 많은 나무모를 생산하는데 도움이 되는 일을 스스로 찾아하였다.

지난해 6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조국의 산과 들을 더욱 푸르게 할 일념을 안고 시모체양묘장으로 달려온 청년들에게 어려해동안 친어머니의 사랑과 정을 기울이면서 평성시모체양묘장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는데 애국의 마음을 다 바쳐온 박향숙동무에게 감사를 보내주시였다.

이 소식에 접한 시모체양묘장 청년들은 온밤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날 그들은 당의 뜻을 받드는 길에서 삶의 보람과 행복을 찾는 중덕동의 녀맹초급일군들처럼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조국을 받들어갈것을 굳게 마음다지였다.

본사기자 김치곤

순결한 마음, 뜨거운 열정

신계군 읍협동농장 제9작업반에서

무연하게 펼쳐진 강냉이포전, 포기마다 빛힌 팔뚝같은 강냉이이삭들…

호뭇함을 금치 못해하는 우리에게 신계군 읍협동농장의 일군은 바로 여기가 제9작업반포전이라고 이야기해주었다.

우리는 작업반의 농장원들이 보통 이악하지 않은 실농군들이라는 생각이 앞서 서둘러 그들을 찾아 떠났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녀성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며 그들을 사회활동에 널리 인입하는것은 혁명과 건설의 중요한 요구입니다.》

우리가 만난 작업반장은 40대의 중년녀성이였는데 그는 군당책임일군의 안해였다.

알고보니 제9작업반은 군급지도기관 일군들의 안해들로 조직된 작업반이였다.

어떻게 오늘과 같은 호뭇한 농사작황을 안아올수 있었는가고 묻는 우리에게 리옥실작업반장은 웃으며 이렇게 말하였다.

《우린 그저 이 땅에 진심을 묻었을뿐입니다.》

군당일군들의 안해들로 작업반이 조직된것은 1990년대 초였다. 당시 그들의 열성은 대단했다.

몇해동안 련속 많은 알곡소출을 내는것을 보고 그들이 농사일을 제대로 하겠는가고 머리를 기웃거리던 농장원들까지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그후에는 어려가지 사정으로 하여 차츰 뒤지기 시작하였다.

바로 이때 새로 임명된 군당책임일군이 어느날 집에 들어와 안해인 리옥실동무에게 말하였다.

《오늘 농장들을 좀 돌아보니 로력사정이 긴장하더구만. 그 옛날 쌀모없는 땅으로 미루고 또 미루어 그 이름도 미루벌로 불리운 이 땅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은덕으로 생명수가 철철 흐르게 되였는데 로력이 모자라 알곡소출을 더 낼수 없다고 생각하니 잠이 오지 않소.》

남편의 이 말을 듣는 순간 리옥실동무의 머리속에는 미루벌에 새겨진 가슴뜨거운 이야기가 떠올랐다.

그럴수록 그의 가슴속에는 미루벌에 사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 벌의 주인구실을 하여야 하겠다는 결심이 더욱 굳어져갔다. 더우기 군당책임일군의 안해라면 나라의 쌀독을 채우는데서도 앞장에 서야 한다고 그는 생각하였다.

그무렵 군당책임일군의 절절한 호소를 전해들은 군당위원회와 군인민위원회를 비롯한 군급지도기관 일군들의 안해들도 같은 결심을 가다듬고있었다.

이렇게 되여 군급지도기관 일군들의 안해들이 작업반농사에 떨쳐나서게 되였다.

하지만 누구나 처음 하는 농사일이여서 좀처럼 일자리가 나지 않았다.

온종일 해빛이 내려쪼이는 포전에서 김매기를 해야 할 때에는 물집이 진 손을 들여다보며 눈물을 머금는 반원들도 있었다. 그때마다 리옥실동무는 작업반원들의 손을 하나하나 잡아주며 이렇게 말하군 하였다.

우리 농장원들은 이런 일을 하루이틀도 아니고 평생을 하고있다. 우리가 농촌에 진출한것은 그 어떤 명예나 그 누구의 체면을 위해서가 아니다. 농업전선을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으로 정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충직하게 받들기 위해서가 아닌가.

리옥실동무의 호소에 분발하여 떨쳐나선 그들은 포전마다 거름도 듬뿍 내고 김 한대 없이 알뜰히 관리하여 첫해에 벌써 농장적으로 가장 높은 수확을 냈다.

이렇게 거두어들인 낟알을 알알이 골라 나라에 바칠 때 그들의 기쁨은 참으로 컸다.

그 나날 그들은 작업반의 포전만을 가꾸지 않았다.

지난해 닥쳐든 가물과의 투쟁에서 작업반의 농장원들이 스스로 협동농장포전들을 메주발뜻 하며 생명수를 더해주었다는 이야기는 오늘도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우리는 해빛에 그슬린 그들의 얼굴이며 터갈라진 손들을 보며 생각하였다.

이 땅에 묻는 진심, 진정 그것은 조국의 부강번영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하려는 애국의 마음이 아니겠는가.

그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는것만 같았다.

귀중한 이 땅에 진심을 바치기 전에는 조국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라.

본사기자 정영철

자주로 승리떨치는 주체의 사회주의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자기의 탄생을 온 세상에 선포한 때로부터 70년의 년륜을 아로새기고있다.

오늘 주체의 조국, 사회주의조선은 혁명과 건설을 자주적으로 당당하게 해나가고있으며 자체의 힘으로, 자기 식으로 나라와 민족의 부강번영을 이룩해나가는 나라로, 높은 국제적권위와 영향력을 지닌 자주의 성새로 그 위용을 높이 떨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정치사상강국으로서의 우리 조국의 불패의 위용은 주체사상을 구현한 자주정치로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최상의 경지에서 빛내여나가고있는데서 뚜렷이 과시되고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조선이야말로 온갖 적대세력들의 압살책동에도 끄떡하지 않고 자주정치를 실시하는 세계의 본보기라고 격찬하고있다.

얼마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에 즈음하여 자주와 평화, 번영에 관한 네팔주재사상전국토론회가 네팔의 수도 까트만두에서 진행되였다. 토론회에 참가한 네팔의 국회, 정당, 단체들, 주체사상연구조직 인사들과 출판보도관계자들은 우리 공화국이 걸어온 자랑찬 승리의 력사를 높이 평가하였다. 네팔선군정치지지협회 위원장 마니크 라마, 선군정치연구 네팔분학연단 위원장 쏭코리 바로띠, 네팔자력갱생연구회 위원장 쑤바쉬 까지 쉬레스타, 네팔대표의회(하원) 의장 끄리슈나 바하두르 마하라존 비롯한 토론자들은 위대한 김일성주석에 의하여 창시되고 김정일각하에 의해 심화발전된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중심의 정치철학이다, 인류가 자기의 아름다운 미래를 자기 힘으로 개척해나갈수 있게 하는 주체사상은 현실속에서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뚜렷이 실증되였다고 하면서 자주권을 수호하고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모든것을 진행해나가야 하며 따라서 주체사상을 깊이 연구할것을 권고한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우리 공화국의 자주정치의 정당성과 위대한 생활력의 뚜렷한 증시로 된다.

주체사상은 우리 시대, 자주시대의 위대한 지도사상이다.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인류의 투쟁은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을 때만이 승리할수 있다. 주체사상은 자주시대의 투쟁의 기치, 승리의 기치이다.

정치에서의 자주를 떠나서는 그 어떤 자주성에 대하여서도 말할수 없다. 정치적자주성은 자주독립국가의 첫째가는 징표이며 제일생명이다. 어떤 민족이든지 정치적자주성을 견지하여야 이미 이룩한 민족적독립과 자주권을 수호할수 있으며 나라의 발전과 번영을 이룩할수 있다.

정치에서 자주성을 견지하지 못한것으로 하여 초래되는 후과는 참으로 엄중하다.

사상무각이라는 말이 있다. 1980년대말—1990년대초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기발이 내려워지는 비극적사태가 빚어진것이 그를 잘 보여주고있다.

어떻게 되여 이 나라들에서 거의 동시에 사회주의가 붕괴되게 되였는가. 그것은 바로 사회주의나라들사이에 자주성에 기초한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지 못한데 주요한 원인의 하나가 있다.

자주성에 기초하여 단결하고 협조하며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나라들사이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기본원칙이다. 자주성은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다. 자기 나라 실정에 맞게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그것을 자주적으로 관철해나가는것은 누구도 침해할수 없는 매개 나라의 신성한 권리이다. 매개 나라가 자주성을 견지하는것은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나라들사이의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는 문제와 모순되지 않는다. 사회주의위업은 매개 나라 인민의 민족적위업인 동시에 국제적위업이다. 매개 나라는 자기의 자주성을 지킬 권리를 가지는 동시에 다른 나라들의 자주성을 존중하며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동지적으로 단결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도 지니고 있다.

어떤 나라는 다른 나라들에 이래라저래라하고 지시하며 자기의 그릇된 로선을 따르지 않으면 압력을 가하고 내부문제에 간섭하는것과 같은 행동을 서슴없이 하였다. 그 결과 사회주의나라들의 사상적통일과 동지적협조관계가 심히 약화되였으며 단합된 힘으로 제국주의와 맞설수 없게 되였다.

일부 나라들은 주체성이 없이 대국주의적압력에 굴복하고 남의 지휘봉에 따라 움직이다보니 큰 나라가 수정주의를 할 때 같이 수정주의를 하고 또 남이 《개혁》과 《개편》을 한다고 할 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였다. 그리하여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련쇄적으로 파괴되는 엄중한 사태가 빚어지게 되였다.

정치에서 자주성을 견지하지 못하고 제국주의자들이 떼주는 《처방》을 그대로 받아들인 나라들은 례외없이 사회정치적혼란과 민족간, 종족간 분쟁의 소용돌이속에 말려들었다.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다 적용될수 있는 《만능처방》이란 있을수 없다.

정치에서 남의 압력과 간섭을 받아들이고 남의 지휘봉에 따라 움직이면 원칙성과 일관성을 견지할수 없으며 결국은 혁명과 건설을 망쳐먹게 된다. 남의 경험도 비판적으로, 창조적으로 대하여야 한다.

정치에서 자주를 실현한다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자기 사상, 자기 신념이 없이는 절대로 자주정치를 실시할수 없다.

세계사회주의운동이 혼란상태에 빠졌을 때에 우리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오늘과 같이 높은 존엄과 국제적권위를 지닌 나라로 될수 있은것은 자주정치를 일관하게 실시하여왔기때문이다.

우리는 정치적대를 확고히 세우고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으며 남이 우리 일에 간섭해나서는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정책을 하나 세워도 우리 나라의 특성과 우리 인민의 리익과 요구에 맞게 세웠으며 우리자신이 주인이 되여 정책을 관철하였다. 현대수정주의자들이 저들의 정책을 내리먹이려 할 때에도 우리는 그것을 단호히 쳐갈겼다. 그 어떤 압력도 우리 인민에게는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 위대한 인민이 있다. 우리는 자기 위업의 정당성을 확신하며 자기의 힘과 능력을 믿는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남을 쳐다볼것도 없었고 남에게 빌붙을 필요도 없었으며 더우기는 남의 지시나 압력을 받아들일 리유가 없었다. 우리는 자주로 승리와 영광의 길을 걸어왔다.

우리 혁명의 실천적경험과 우리 공화국의 70년력사의 총화는 자주는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고 미래이며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가는 어기에 인류자주위업의 승리적담보가 있다는것을 확증해주고있다.

자주성을 지향하는 모든 진보적인민들은 오늘의 세계에서 참다운 삶을 누릴수 있는 길도,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킬수 있는 길도 철저히 자주의 길에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그를 실천하기 위해 굴함없이 싸워나가야 할것이다.

라 명 성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업적토론회 로씨야에서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력사적인 로씨야련방 원동지역방문 16돐에 즈음하여 정의의 로씨야당 연해변강지부위원회에서 8월 24일 업적토론회가 진행되였다.

토론회에서 지부위원회 위원장 알렉세이 꼬지쯔끼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지금으로부터 16년전인 2002년 8월 김정일동지께서 로씨야련방의 원동지역을 방문하신것은 로조관계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의 계기로 된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방문기간 《이그나뜨》상업센터, 《올라드 볼레브》빵공장 등을 참관하시였으며 뿌찐대통령과 상봉하시고 두 나라사이의 관계발전을 위한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하시였다.

그이의 방문은 실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조선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존경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조선반도에 평화적환경이 마련된데 대해 세계인민들은 경탄을 금치 못해하고있다.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나라의 통일을 반드시 이룩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한편 위대한 장군님의 로씨야련방 씨비리 및 원동지역방문 7돐에 즈음하여 로씨야 아무르주의 부레야역에 모셔진 그이의 사적현판에 꽃다발과 꽃송이들을 진정하는 행사가 8월 21일에 진행되였다.

공화국창건 70돐 경축행사 여러 나라에서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에 즈음하여 우크라이나, 메히꼬에서는 경축모임이, 에꽈도르에서는 업적토론회가, 우간다에서는 강연회가, 로므니아에서는 좌담회가 8월 19일부터 23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였다.

행사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우크라이나 《선군의 보검》주체사상연구협회 드네쁘로페뜨롭스크지부 위원장 그리고리 글로바는 영광스러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에 즈음하여 절세위인들을 높이 모시고 조선이 걸어온 승리와 영광의 길을 돌이켜보고있다고 하면서 오늘 조선은 존경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세계의 경탄을 불러일으키는 강국으로 존엄떨치고있다, 조선은 자랑스러운 력사와 더불어 길이 번영할것이다고 찬양하였다.

에꽈도르자유사회주의자당 부위원장 아호야 자카리야 헤이몰라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아래 우리 공화국이 자기의 로정우에 오로지 승리만을 아로새겨온데 대하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담대한 의지와 결단에 의해 조선반도정세에서 긍정적변화들이 일어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우간다에서 진행된 강연회에서 참가자들은 조선식사회주의의 우월성에 대해 우간다의 주체사상신봉자들은 깊이 인식하고있다, 사회주의사회야말로 인민의 행복과 나라의 발전을 이룩할수 있는 진정한 사회이다고 강조하였다.

로므니아사회주의당 위원장 뽄쓰딴떤 로따루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와 사회주의위업완성과 나라의 통일을 위해 한평생을 바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숭고한 경의를 드린다.

또한 나라의 자주권수호와 발전을 위해 온갖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조선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뜨거운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

공화국의 력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억경을 순경으로 전환시켜온 빛나는 력사이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들의 령도를 받들어 사회주의길을 꿋꿋이 걸어온 영웅적조선인민에 의해서만 창조될수 있는것이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가 이룩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조선중앙통신】

보수패당의 진보세력탄압사건 폭로

남조선의 인터네트신문 《자주시보》에 의하면 얼마전 《국민주권련대》와 대학생진보련합이 이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갇혀있는 수원구치소앞에서 그의 석방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지였다.

집회는 보수패당을 조소하는 대학생들의 공연이 막을 여는것으로 시작되였다. 그에 이어 여러 인사들의 발언이 있었다.

한 발언자는 2013년에 있은 《내란음모사건》은 정보원선거개입사건 등으로 위기에 몰린 보수패당이 이전 통합진보당을 비롯한 진보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꾸며낸 모략사건이라고 폭로하였다. 그러면서 최근 보수《정권》시기의 사법롱락행위와 재판거래를 립증하는 문건들이 공개되고 진짜내란음모의 주범이 밝혀졌다고 주장하였다. 이날 발언자들은 《내란음모사건》의 진상규명과 이 사건으로 구속된 사람들의 석방, 사법롱락범죄주범의 구속을 요구하였다.

집회참가자들은 수원구치소를 향해 《리석기의원 석방하라.》, 《보안법 철폐하라.》, 《랑승태를 구속하라.》라고 웨쳤다.

본사기자

민간인학살만행의 진상규명을 요구

남조선의 《면합뉴스》가 전한데 의하면 한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전쟁시기에 남조선에서 감행된 민간인학살사건들의 진상규명을 위해 발의된 법안의 시급한 처리를 《국회》에 요구하였다.

《국회》청사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단체는 지난 전쟁시기 남조선에서 권력에 의해 수많은 무고한 민간인들이 억울하게 희생당한 현대사의 숨겨진 진실을 하루빨리 밝혀내야 한다고 하면서 민간인학살만행에 대한 진상규명이 없이는 인권을 론할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계속하여 단체는 전쟁시기에 감행된 일부 민간인학살사건들에 대한 진상이 밝혀지기는 했지만 보잘것없는 보상을 받은것이 전부라고 하면서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과거청산을 더는 미루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남조선신문들 군사쿠데타음모의 배후를 밝힐것을 주장

남조선신문들이 2016년 12월 초불투쟁이 절정을 이루던 시기 청와대와 기무사령부가 군사쿠데타음모를 모의한 사실을 폭로하였다.

신문 《한겨레》는 당시 기무사령관이였던 조현천이 청와대에 들어가 밀담을 하였으며 실지로 그 이후부터 기무사령부뿐아니라 합동참모본부 등 군내무에서 비밀조직을 내오는것을 비롯하여 《계엄》관련움직임이 본격화되였다고 주장하였다.

《서울신문》을 비롯한 다른 신문들도 이에 대하여 전하면서 청와대가 초불투쟁진압을 위한 《계엄》문건작성에 직접적으로 련루되였다고 단죄하였다.

만일 《계엄》문건이 청와대의 지시로 작성되였다면 문제는 심각하다고 하면서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여야 한다고 신문들은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수리아대통령 미국의 위협정책을 비난

수리아대통령 바샤르 알 아싸드가 8월 26일 한 외교석상에서 자기 나라에 대한 미국의 위협정책을 비난하였다. 그는 지금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테로조직들을 후원하고 수리아정부를 위협하면서 전쟁을 지연시키려 하고있다고 까밝혔다.

미국의 위협책동은 수리아정부군이 테로조직들에 대한 공격을 개시할 때마다 벌어지고있다고 하면서 그는 정부가 앞으로 그에 대처하여 지역나라들과의 협력을 강화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로씨야 미국의 요구를 배격

로씨야외무성 부상 세르게이 랍꼬브가 최근 기자회견에서 수리아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요구를 배격하였다.

그는 국제문제들에서와 마찬가지로 미국인들은 대외정치분야에서 유치한 태도를 취하고있으며 임의의 문제도 일면적이고 어리석은 립장에 국한시키고있다고 비난하였다.

미국은 수리아에서 《정치적이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나라 대통령을 사임시킬것을 요구하고있다고 그는 까밝혔다.

이란관리 미국의 부당한 제재해제를 요구

이란대통령사무소 국제법률문제센터 책임자가 8월 27일 네데를란드의 헤그에서 자기 나라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부당하며 유해로운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제재는 이란의 경제와 수백만명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있다고 하면서 미국이 지체없이 제재를 폐지시킬뿐아니라 추가제재와 관련한 그 어떤 위협도 하지 않도록 해줄것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요구하였다.

미국에서 총기류범죄 또 발생

미국 플로리다주의 잭슨빌시에서 8월 26일 총기류범죄가 발생하였다.

이날 시에 있는 한 유흥장에서 무장범죄자가 사람들에게 총격을 가해 4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지난 2월에도 주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류혈적인 총기류범죄로 17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

팔레스티나수상 미국을 안정파괴의 공범자로 락인

팔레스티나수상 라미 함달라호가 최근 한 의식에서 연설하면서 미국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티나령토강점과 지역의 안정파괴행위의 공범자라고 폭로하였다. 그는 미국이 꾸드스를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고 이스라엘과 함께 팔레스티나위업, 특히 팔레스티나인민의 해방권리와 귀환권리, 자결권을 말살하기 위한 음모를 꾸며왔다고 까밝혔다.

팔레스티나는 미국의 공갈과 그 어떤 결정도 배격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일본인들 미군수송기배비를 반대

일본의 도꾜도에서 최근 미군의 수직리착륙수송기 《CV-22 오스프레이》의 배비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있다.

8월 22일 주일미군이 기한을 앞당겨 요꼬다미공군기지에 《오스프레이》수송기를 끌어다놓으려는 기도를 드러낸것과 관련하여 현지 주민들은 《오스프레이》수송기가 오는것을 바라지 않는다, 사고률이 높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불안해진다고 우려를 표시하였다.

시민단체인 《요꼬다기지의 철거를 요구하는 니시따마회》의 성원들은 미군기지근처에서 시위를 벌리면서 수송기배비계획을 철회할것을 요구하였다.

사회적진보와 발전을 위하여

강철생산 증가

이란에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의 기간에 강철생산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3.6% 늘어났다. 8월 28일 이 나라 신문 《파이낸셜 트리뷴》이 이에 대해 전하였다.

국내총생산 장성

인디아에서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국내총생산장성률이 8.2%에 달하였다.

특히 제조 및 봉사업부문에서 많은 성과가 이룩되였다.

8월 31일 이 나라 중앙통계국이 밝혔다.

여러 나라사이의 협조

중국과 시에라레온이 8월 30일 두 나라사이의 전면적인 전략적협조동반자관계를 계속 발전시킬데 관한 문건에 조인하였다.

최근 베네수엘라와 트리니대드 토바고는 가스 및 원유채취분야에서 호상 협력할데 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교통운수발전노력

우간다에서 엔테베국제비행장을 개건확장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시키고있다.

공사의 1단계가 끝나면 비행장의 화물처리능력이 15만t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한 정부는 수도 캄팔라와 케니아의 몸바사항을 련결하는 철도를 건설할것을 계획하고있다. 철도건설이 완공되면 지난 시기 10여일이 걸리던 운행기간이 2일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고 한다.

인구 증대

브라질의 인구가 7월현재 2억 849만 4 900명에 달하였다. 이것은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0.82% 늘어난것이다.

8월 29일 이 나라 통계국이 밝혔다.

【조선중앙통신】

오늘의 세계

해결전망이 어두운 로미모순관계

최근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로미고위급회담이 있었다.

로씨야안전리사회 서기장 니꼴라이 빠트루쉐브와 미국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존 볼튼사이에 진행된 회담은 지난 7월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에서 있은 로미수뇌자회담이래 처음으로 개최된 쌍무협상이였다.

전문가들의 예측대로 회담은 얼어붙었던 로미사이에 눈석이를 불러오는 계기로 되지 못하였다. 5시간나마 진행된 회담은 공동기자회견도 공동성명도 없이 막을 내렸다.

그렇게 된것은 미국측이 성명에 로씨야의 미국선거간섭문제와 관련한 저들의 립장이 반영되여야 한다고 고집하였기때문이다.

미국측은 11월에 진행되게 되는 미국회중간선거에 로씨야가 개입하는것을 허용하지 않을것이며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준비가 되여있다고 로씨야에 경고하였다고 한다. 로씨야가 미국선거에 개입하고있다는것을 인정하도록 만드는 이런 내용이 공동성명에 포함되는것을 로씨야가 찬동할리 만무한것이다.

회담에서는 로미사이에 존재하는 지역적인 문제들도 거의나 합의를 보지 못하였다.

수리아문제와 그를 둘러싼 이란의 역할에 대하여 쌍방은 완전히 상반되는 립장을 표시하였다. 수리아에 주둔한 모든 이란무력이 자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것이 미국측의 주장이라면 이란의 수리아주둔은 수리아의 요청에 따른것이며 수리아가 자국에서 벌리고있는 이란의 행동을 매우 존중하고있다는것이 로씨야의 립장이였다.

회담후에 있은 기자회견에서 볼튼이 밝힌데 의하면 로씨야가 수리아—이스라엘국경으로부터 이란군을 철수시키는 대신 이란의 원유수출에 대한 제한조치를 연기할것을 제의하였으나 미국은 그에 동의하지 않았다.

보다싶이 로미회담은 쌍방이 저마끔 자기의 주장을 선명히 드러냈을뿐 합의점을 이룰수 없었다.

총적으로 놓고볼 때 제네바회담은 로미가 호상간 모순을 극복하여 세계평화와 안정보장에 이바지할것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실망을 준 협상으로 되고말았다는것이다.

로미고위급회담에서 불협화음이 울려나온것은 피할수 없는 귀결이였다.

회담을 앞두고 두 나라사이의 비난전이 격화되였다.

회담이 진행되기 며칠전에도 미행정부는 2명의 로씨야인과 1개의 로씨야회사에 제재를 실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로씨야외무상 세르게이 라브로브는 미국이 로씨야에 대한 억제정책을 추구하고있다고 비난하였다. 그는 대로씨야제재가 실시된 원인은 수리아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문제 등에 있지 않으며 비렬한 수법들을 리용하여 도저히 가망이 없는 로씨야에 대한 억제정책을 추진하자는 의도외에 다른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였다.

외무성 부상 세르게이 랍꼬브는 꾸며낸 구실들에 근거한 미국의 대로씨야제재실시에 대처하는것은 전통으로 되고말았다, 늘 그러하듯이 그 어떤 증거도 근거도 없으며 악의에 찬 고루한 비방중상만이 있다, 미국은 《더 나쁠수록 더 좋다.》라는 원칙에 따라 행동하고있다고 단죄하였다.

미국은 저들대로 반로씨야공세를 강화하였다. 미재무성 차관은 로씨야가 세계무대에서 자기의 태도를 크게 바꾸지 않는 경우 이 나라에 훨씬 더 큰 경제적고통을 들씌울것이라고 발언하였다.

미국은 로씨야에 대한 군사적압박도 더욱 강화하고있다. 함대를 유지하는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든다고 하면서 2011년에 해산하였던 2함대를 부활시켰다. 이로써 대서양은 로미대결장으로 화했다.

최근에 미해군 작전부장은 2함대가 미해군에서 보다 큰 역할을 놀게 될것이라고 하면서 작전수역을 북극권너머 로씨야와 가까운 수역까지 확대하겠다고 암시하였다. 그가 말하는 큰 역할이란 미군함들이 로씨야의 문어구에로 가까이 다가가 로씨야의 잠수함기동능력을 억제하도록 한다는것이다.

정치, 경제, 군사 등 여러 분야에서 끊임없는 마찰을 일으키고있는것이 로미관계의 현 실태이다.

현실은 지정학적리익을 둘러싼 의견상이로 얽힐대로 얽힌 로미모순이 쉽게 해결되기 어렵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본사기자 박 예 경

미국의 내정간섭에 반발하는 캄보자

얼마전 미국이 캄보자에 대한 사증제한조치를 확대한다고 발표하였다. 이 나라에서 지난 7월에 진행된 국회총선거가 민주주의원칙에 어긋난다는것이 그 리유로 되였다.

이번 총선거는 최대야당인 캄보자구국당이 정변을 기도한것으로 하여 해산되고 당수가 구속된 상태에서 진행되였다. 이러한 속에 수상 훈 센이 이끄는 캄보자인민당이 국회하원의석수의 대부분을 획득하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이를 놓고 미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아니라느니, 결함투성이라느니 하는 비난을 계속해왔다. 사증제한조치확대는 캄보자에서 진행된 선거에 대한 미국의 부정적인 립장을 보다 명백히 표시한것으로 된다.

이와 관련하여 캄보자인민당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자기 나라의 정부관리들이 미국을 려행할 의향이 없는 조건에서 그러한 조치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하면서 미국이 실시하는 제한조치나 제재들은 비효과적이고 헛된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렇지 않아도 캄보자와 미국사이의 관계는 순탄치 않게 흘러왔다.

지난해 캄보자에서는 미국의 재정적지원밑에 운영되던 민족민주협회를 비롯한 여러 비정부기구단체들이 추방되였다. 캄보자의 해당 기관은 이 단체들이 일부 야당세력들과 접촉하면서 반정부활동을 부추겼다고 밝혔다. 사진의 어과가 채 가라앉기도 전에 이번에는 최대야당인 캄보자구국당 당수 껌 쏘카가 반정부활동을 벌리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인터네트에 공개되는 사건이 터졌다. 동영상자료에는 껌 쏘카가 2013년 12월 오스트랄리아에 있는 자기의 지지자들앞에서 이전 유고슬라비아정부를 붕괴시킨 각본대로 캄보자의 현 정부를 뒤집어엎을 준비를 갖출데 대한 지시를 미국으로부터 받았다고 말하는 장면이 수록되여있었다고 한다. 정부는 즉시 그에 대한 체포작전을 단행하였다. 프놈 뻰 재판소는 껌 쏘카가 1993년부터 외국인과 공모하여 국내에서 혼란을 일으키려 하였다고 까밝히면서 이것은 명백히 국가반역죄로 된다고 선언하였다.

껌 쏘카의 체포를 놓고 미국무성은 《중대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캄보자의 민주주의실태를 문제시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캄보자구국당의 적지 않은 인물들도 자기 당수의 체포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석방을 요구해나섰다.

적대세력들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에 대처하여 캄보자수상은 국내에서 정부전복을 기도하는 반대파세력의 뒤에는 바로 미국이 있다고 폭로하면서 조국을 배반하고 외세와 공모하여 반역행위를 감행하는자들을 즉시 엄벌에 처할것이라고 언명하였다. 뒤이어 캄보자구국당을 해산하고 이 당의 주요성원들의 정치활동을 5년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캄보자에서의 정치정세흐름이 날이 갈수록 더욱 반미적인 경향을 띠게 되자 미국은 《민주주의퇴보》, 《독재》를 운운하면서 이 나라에 대한 비난의 도수를 높이는 한편 원조중단과 같은 실제적인 제재조치들을 발동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캄보자는 이를 부당한 내정간섭으로 락인하고 철저히 배격해나서고있다. 그 무슨 원조중단도 캄보자정부에 영향을 주지 못할것이다, 캄보자는 제힘으로 일떠설수 있으며 다른 나라의 지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미국의 원조중지조치를 《환영》한다는 립장을 표명하였다.

미국의 제재와 비난은 그후에도 계속되였지만 그때마다 캄보자정부는 이에 반발하면서 자기의 태도를 바꾸기를 한사코 거부하여왔다. 캄보자에서 진행된 총선거를 둘러싸고 최근시기에 벌어지고있는 호상간의 비난전은 이러한 모순과 대립관계의 연장이며 그 직접적산물이다.

적지 않은 정세분석가들은 반정부세력들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캄보자에 친미정부를 세우고 그것을 기화로 동남아시아지역나라들에서 《색갈혁명》의 도미노현상을 일으키려는것이 미국의 목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용납하지 않으려는 캄보자정부의 견결한 립장으로 하여 두 나라 관계가 앞으로 더욱 악화되는것은 피할수 없을것이라고 평하고있다.

본사기자 안 철 권

위험계선에 이른 세계생태계

세계생태계가 파괴될 위험계선에 이르러 사람들의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얼마전 영국의 연구사들은 열대지역의 대초원과 숲, 호수, 강과 산호무지의 상태를 상세히 분석하였다.

연구사들이 이 지역의 생태계를 연구대상으로 정한것은 세계생물종의 4분의 3 특히 조류의 90%가 이곳에서 살고있기때문이다.

연구사들은 열대지역의 생태계에 대한 연구결과를 영국잡지 《네이처》에 발표하였다. 그에 의하면 세계생태계가 파괴될 위험계선에 이르렀다. 많은 생물종들이 과도한 물고기잡이, 벌목과 같은 인간의 생존활동과 가물 등 자연재해로 하여 멸종의 위험에 처해있다. 날로 심각해지고있는 이상기후현상으로 하여 그 위험성은 더욱 커지고있다고 한다.

생물종들은 일단 사라지면 영원히 재생될수 없다. 생물종들의 감소는 전반적인 생태계의 안정성을 파괴하며 나아가서 인류의 생존과 발전에 커다란 위협을 주게 된다.

연구사업에 동원된 한 교수는 이렇게 말하였다.

《산호무지를 실례로 들수 있다. 비록 산호무지면적은 바다면적의 0.1%밖에 안되지만 2억명에게 물고기자원을 제공하고 바다를 보호해준다.

한편 열대지역의 숲과 대초원은 특지생물계의 탄소저장에서 40%의 몫을 맡고있다. 또한 일부 곡창지대에 비가 내리게 하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연구사들은 효과적인 대책을 즉시 세우지 않는다면 생물종들이 전례없는 규모로 사라지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현시기 생물권의 파괴를 막는것은 한시도 미룰수 없는 국제사회의 사활적인 요구이며 공동의 과제이다.

유엔은 세계 여러 나라들의 일정한 지역을 세계생물권보호구로 정해놓는 등 생물다양성보호를 위한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본사기자

간석지의 염성알카리토양에 새로운 먹이용수수품종 재배

중국의 한 연구집단이 최근 염분함량이 각이한 염성알카리토양에서 자라는 새로운 먹이용수수품종을 육종하는데 성공하였다.

강소성 연해지역의 간석지면적은 약 68만ha로서 성에서 가장 큰 토지에비로 된다.

그러나 이곳 간석지의 염분함량은 보통 0.3~2%이며 그중 중간정도의 염성알카리토양의 비률이 매우 높다. 중간정도의 염성알카리토양을 충분히 리용하자면 선택된 작물이 0.3~0.6%정도의 염분에 견딜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일부 밭곡식들은 내염성을 일정하게 가지고있지만 염분함량이 높은 토양에서는 모가 잘 자라지 않으며 자라는 경우에도 수확고가 높지 못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집단은 지난 10년동안 유전질자원을 선별, 리용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와 함께 여러 지역에서 내염성작물의 선별 및 다수화재배시험, 내염성먹이작물품종의 선별육종, 우량종다수화재배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 강소성 연해지역 간석지에 적합하면서도 생물량과 단백질함량이 높고 시안화수소산함량이 낮은 내염성수수품종을 얻어냈다.

【조선중앙통신】

ㄱ-1811401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등록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문설원실 373-2492, 당력사교양부 373-2686,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2782,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